
해외출장보고서

2012.01.13~2012.01.21

해 외 출 장 보 고 서

건축도시아카이브 기관방문 및 신규콘텐츠DB 구축·활용 사례조사

차 례

I	출장개요	3
	1. 출장목적	3
	2. 출장기간	3
	3. 출장도시(국가별)	3
	4. 출장자	3
	5. 세부일정	4
	6. 도시별 방문기관 및 사례답사지 주요 조사내용	5
II	주요 출장방문지 및 조사내용	10
	1.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10
	2. 이스탄불, 터키	26
	3. 제노바, 이탈리아	47
	4. 리옹, 프랑스	67
	5. 파리, 프랑스	85
III	기타	92
	1. 취득자료 목록	92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1)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아카이브 관련사례 조사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위한 기관면담
 - (가칭) 건축도시박물관 및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모델 및 전시 사례조사
 - 박물관: 아부다비 문화특구조성 프로젝트, 토니가르니에 도시박물관
 - 아카이브: 프랑스 건축과문화유적박물관,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 (Archivio Storico del Comune di Genova)
 - 2012년 신규콘텐츠 및 DB활용 사례조사
 - 장소DB: 마스다르시티, 이스탄불 문화유적보호부서, 제노바 시청, 리용 시청
 - DB구축 및 활용: 터키 건축정보센터(YEP)

2. 출장기간

- 2012.01.13.(금) ~ 2012.01.21.(토) (6박9일)

3. 출장도시(국가별)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
- 터키: 이스탄불
- 이탈리아: 제노바
- 프랑스: 리용, 파리

4. 출장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 김상호 연구위원, 오주형 부연구위원, 박지혜 연구원

5. 세부일정

〈표〉 상세일정표

일자	현지시간	출발지	도착지	일 정	기타 (방문인사 등)
1월13일(금)	23:55 05:05(+1)	인천	두바이	◦인천공항 출발 ◦두바이공항 도착	이동
1월14일(토)	06:00 08:00	두바이	아부다비	◦두바이 출발 ◦아부다비 도착	이동
	09:00 12:00	아부다비		◦사례답사: 마스다르시티	회의 및 답사
	15:00 18:00			◦아부다비관광개발투자청(TDIC) － 문화특구조성 프로젝트(SADIYAT)	회의
	19:00 21:00	아부 다비	두바이	◦아부다비 출발 ◦두바이 도착	이동
	숙박(두바이)				
1월15일(일)	14:50 17:40	두바이	이스탄불	◦두바이공항 출발 ◦터키공항 도착	이동
	숙박(이스탄불)				
1월16일(월)	09:00 12:00	이스탄불		◦이스탄불 문화유적보호부서 방문 － 이스탄불 역사지구 보전정책 및 도시복원 정책	회의
	15:00 18:00			◦YEM(터키건축정보센터) 방문 － 가상건축박물관운영 및 건축산업DB구축관련 정책	회의
	숙박(이스탄불)				
1월17일(화)	10:40 12:35	이스 탄불	제노바	◦터키공항 출발 ◦제노바공항 도착	이동
	15:00 18:00	제노바		◦제노바 시청 방문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 방문 (Archivio storico del Comune di Genova) － 15~20세기 도시행정문서·원고컬렉션·아카이브, 도면 및 인화전시실	회의
	숙박(제노바)				
1월18일(수)	09:00 12:00	제노바		◦역사중심지프로젝트 사례답사	답사
	13:00 20:00	제노바	리옹	◦이탈리아 제노바 출발 ◦프랑스 리옹 도착	이동
	숙박(리옹)				
1월19일(목)	09:00	리옹		◦리옹시청 방문	회의
	15:00 18:00			◦CONFLUENCE 사례답사 ◦토니가르니에 도시박물관 방문 － 혁신적이고 독특한 박물관 설계·계획과 건축의 기본계획 등 전시	답사
	숙박(리옹)				
1월20일(금)	10:04 12:10	리옹	파리	◦리옹역 출발 ◦파리역 도착	이동
	14:00 17:00	파리		◦프랑스건축과문화유적박물관 방문	회의
	20:35			◦파리 샤를드골 공항 출발	
1월21일(토)	15:25	파리	인천	◦인천공항 도착	이동

6. 도시별 방문기관 및 사례답사지 주요 조사내용

〈표〉 주요 사례답사지 정리

	아부다비(UAE)	이스탄불(터키)	제노바(이탈리아)	리옹(프랑스)	파리(프랑스)
기관방문	□ 아부다비 관광개발 투자청(TDIC)	□ 터키건축정보 센터(YEM) □ 문화유적보호 부서	□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 □ 제노바시청	□ 리옹시청	□ 프랑스건축과 문화 유적박물관
사례답사	□ SAADIYAT 문화특구 조성 프로젝트단지 □ 마스다르시티 (마스다르 사(社))	□ 역사보전지구	□ 행만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 구시가지 복원 · 재생사례 □ 공장지역 재생 사례	□ 지역문화자산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사례 □ 산업단지 재생사례 (Confluence) □ 토니가르니에 도시박물관	

1) 아부다비(UAE)

□ [사례답사] 마스다르시티

○ 참석자

- Ms.Ameera(Guided Tour 담당자), Mr.Inaki 외 3인

○ 사례답사지 주요내용

- 친환경 녹색신도시 조성과정 기록현황 및 계획기법 조사
- 지리적 특성: 지정학적 장점 · 약점
- 친환경 공간계획적 측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친환경 계획방식
- 개발 및 투자여건: 마스다르&두바이 개발방식의 차이점 · 유사점, 개발 시 민관 협력방식, 프로젝트 진행과정 기록방식
- 공간계획과 건축계획: 상위계획-단지계획 간 조정방식, 개발밀도 산정기준

□ [기관방문] 아부다비관광개발투자청(TDIC) → [사례소개] SAADIYAT 전시관 (문화특구조성 프로젝트단지)

○ 참석자

- Rita Aoun Abdo (Executive Director, Cultural Department) 외 7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문화특구 조성관련: 문화특구 주변 경관보호 규제, 지정요건, 추진절차 및 현황, 정부-민간 역할분담, 관광자원화 및 주민소득 창출사례
- 박물관 단지관련: 도시 내 박물관단지의 필요시설
- 박물관 관련: 인력구성, 자료기록 방식, 박물관 유치비용·조건, 개발비용 부담방식

2) 이스탄불(터키)

□ [기관방문] 이스탄불 문화유적보호부서 → [사례답사] 역사보전지구

- 참석자

- Cem Eris (Director of Historical Sites Protection), Yasin Dilmen (Programmer) 외 5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주요주체 및 역할: 담당부서 및 관련제도, 토지이용규제 제도, 도시재생 사례
- 보존지구 종류: 공간적 범위, 지정기준, 행위제한 내용,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중앙정부-시정부 간 역할분담체계, 주변지역 지가수준
- 보존관리 대책: 관리기관, 조직, 인력, 예산, 지정요건, 추진절차 및 현황
- 주변지역 보호관리 대책: 원형유지 · 변경원칙 및 기준, 인센티브 대책

□ [기관방문] 터키건축정보센터(YEM)

- 기관 주요면담내용

- 시설 및 운영관련: 건립배경, 규모(운영주체·시설·조직·예산현황), 연간 방문객 수, 주요기능, 아카이브 현황 및 표준체계
- 재정 확보: 운영비, 주요시설별 규모
- 타 관련기관 간 관계: 네트워크 구축, 건축정보센터에서 연구소 역할·비중
- 가상건축박물관 관련: 운영배경, 향후 전망

- 참석자

- Gulcin Ipek(Publishing Group Director), Emine Seda Kayum (Digital publishing Supervisor), Neslihan Kucukaslan(Events Specialist) 외 4인

3) 제노바(이탈리아)

□ [기관방문]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Archivo storico Comune Genova)

- 참석자
 - Dott.ssa Raffaella Ponte (Director) 외 4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박물관 개요: 설립년도, 건립 및 운영주체, 인력규모, 건립기간, 규모(운영주체·시설·조직·예산현황 포함), 연간 방문객 수, 조직구성
 - 박물관 예산관련: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방식, 예산규모, 유지관리 비용, 매체별(문서, 이미지, 영상 등) 저장방법
 - 박물관 시설관련: 시설별 규모, 유사박물관 간 관계 및 유사·차이점
 - 박물관 전시관련: 주요기능,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방향, 유물 유지관리 방식

□ [기관방문] 제노바시청→ [사례답사] 구시가지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례/ 항만개발 도시재생사례/ 공장지역(산업단지) 도시재생사례

- 참석자
 - Dott.ssa Raffaella Ponte (Director) 외 4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시설 및 운영관련: 건립배경, 규모(운영주체·시설·조직·예산현황 포함), 주요 기능, 프로그램, 자료관리 현황
 - 재정 확보방안: 운영비, 시설별 규모
 - 유사사례 간 네트워킹: 관련기관(공공, 민간, 문화시설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아카이브 관련: 아카이빙 표준 유무, 매체별 관리방법, 연구소 역할·비중
 - 가상건축박물관 관련: 운영배경, 관리주체, 타 박물관 간 연계성, 추진방향

4) 리옹(프랑스)

□ [기관방문] 리옹시청 → [사례답사] 지역문화자산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사례/ 산업단지 재생사례(confluence)

○ 참석자

- Bruno Delas (Mission site historique de lyon, Directeur), Guillaume Arnould (International partnership, Project manager), Patrice Berger (architecture) 외 2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련: 원칙 · 기준, 주요정책, 보존-이용 간 조정방식, 공공-민간 간 협력시스템
-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주민인식 · 이해도, 갈등 조정방식, 주민조직 구성, 주민조직에 대한 공공지원 방식
- 도시재생 재원확보: 재원확보방안, 재원조달 주체, 재원조달 기준
- 도시재생사업 평가방법: 피드백 과정, 사업평가 단계, 주민만족도
- 수변공간 활용: 자연친화적 수변공간 정비방안, 주변 도시와의 연계방안

□ [기관 및 사례답사] 토니가르니에 도시박물관

○ 사례답사지 주요내용

- 건축관련 박물관 및 아카이브 벤치마킹 사례조사를 위한 박물관 제반현황 조사
- 운영조직, 현황, 공간구성, 기능, 프로그램, 재정현황, 수익모델 등

5) 파리(프랑스)

□ [기관방문] 프랑스건축과문화유적박물관

○ 참석자

- David Pecere(기록보관소장), Laurence de Finance(박물관장), Mireille Grubert(전통건축학교 교장) 외 5인

○ 기관 주요면담내용

- 박물관 개요: 설립년도, 건립·운영주체, 배경, 건립기간, 규모, 연간 방문객 수, 조직구성
- 박물관 예산: 건립비·운영비 규모, 확보방안, 운영비용, 수익모델, 시설유지비용
- 박물관 시설관련: 시설규모, 유사박물관 사례 및 협력관계
- 박물관 전시관련: 프로그램 내용, 아카이브 현황, 특성, 기획방향, 초기비용, 유물 유지관리 방식, 매뉴얼 확보여부, 기증여부 및 방식

II. 주요 출장 방문지 및 조사내용

1.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Abu Dhabi, U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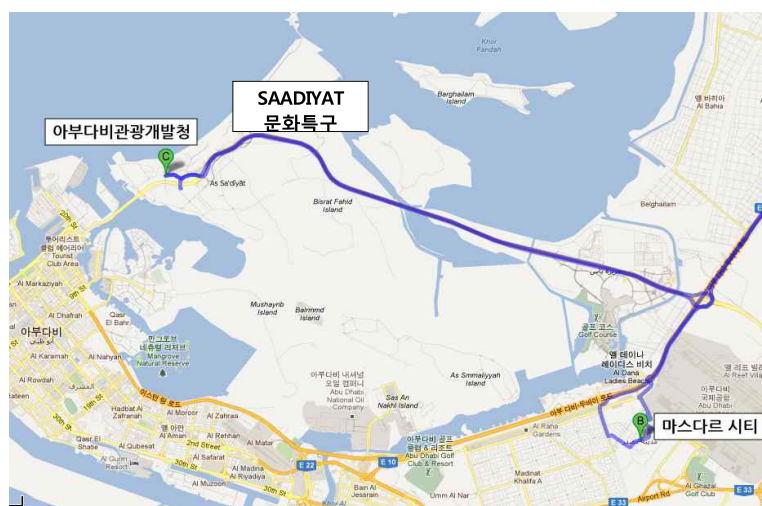
〈표〉 아랍에미리트(UAE) 개요

수도	아부다비 (Abu Dhabi, 70만)
인구	약 230만명
면적	83,591km ² (한국보다 약간 작음)
주요도시	두바이(Dubai), 알아인(Ai Ain), 샤자(Sharjah)
주요민족	아랍족
주요언어	아랍어
종교	회교 (수니파 80%, 시아파 20%)
시차	한국보다 5시간 늦음
통화	디르함(Dirham ; Dh)
기후	1월 평균 약 19~20℃
특성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자(Sharjah), 라스 알 카이마(Ras al-Khaimah), 움 알 콰인(Umm al-Qawain),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의 7개 에미리트가 연합된 연방국가로 원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배를 받던 토후국(土侯國)이었다가 독립

(1) 방문도시 개요

〈표〉 아부다비(Abu Dhabi) 개요

인구	89만 8695명 (2009. 기준)
면적	67,340km ²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8년 앞바다에서 매장량 5억으로 추정되는 해저유전이 발굴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짐 1968년에 시작된 5개년개발계획에 힘입어 현대식 관공서와 호텔·공영주택이 들어서고, 부근 섬에는 정유공장과 채소작물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건조지대 연구소가 입지 고속도로에 의해 북동쪽의 두바이, 동쪽의 아인 오아시스와도 연결됨



〈그림〉 아부다비 전경 및 방문지 위치

(2) 방문기관

1) 아부다비 관광개발투자청(TDIC)

□ 기관소개

설립년도	◦ 2006
건립/운영주체	◦ 아부다비 관광개발투자청 (Tourism Development & Investment Company, TDIC)
특징	◦ 아부다비 관광진흥전략 5개년(2008~2012)계획 수립 - 목표관광객 수: 270만명, 2015년까지 300만명 유치계획 ◦ 5개의 개발분야로 구분됨 - 종합개발(Master Developments) - 상점 및 상업지구(Retail&Commercial) - 문화지구(Cultural) - 레저지구(Leisure) - 호텔 및 리조트 (Hotels&Resorts)

※〈참조〉 아부다비 관광개발투자청 홈페이지(<http://www.tdic.ae/>)

- 2006년 설립된 투자회사로 아부다비의 문화특구 조성 프로젝트 주관
- 문화특구에 들어서게 되는 미술관 및 박물관 뿐 만 아니라, 호텔, 리조트, 사막개발, 골프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 개발하고 있음
- TDIC는 ADTA에 의해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TDIC는 마스터플랜의 미래지향적인 방향 세부사항 조정, 광자원 개발 및 관리가 TDIC의 설립의도임

□ 방문개요

- 회의목적: 가칭)건축도시박물관 모델 및 관련정책 현황조사
- 회의일시: 2012년 1월 14일(토) 오후 3시
- 장소: 아부다비 관광개발투자청 Manarat al saadiyat
- 참석자: Rita Aoun Abdo (Executive Director, Cultural Department) 외 7인

□ 시사점

- 아부다비의 과거는 사막과 해안가로 진주 산업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나 일본의 인조진주개발로 경제적인 큰 타격을 받음. 이후 석유의 발견으로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함
- 아부다비의 현재는 전 국민의 보험과 교육은 무료이고 건물과 도로, 교량들

이 건설되어 지금의 현대화된 모습을 갖추었으며 두바이와 달리 총 200여개의 자연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아부다비의 미래를 위해 아부다비2030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문화산업, 에너지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아부다비 현재 인구는 150만 명 (UAE 전체 인구의 30% 거주)이고 샤디아트 섬이 완공될 경우 14.5만 명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샤디아트섬은 대부분 문화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로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들로 계획되어 있음

〈참고〉 TDIC의 전시관 운영사례: SAADIYAT 전시관

※ TDIC전시관: 샤디아트 문화지구 (아래 2) 참조)

: 담당자는 박물관으로 소개하였으나, 회의 및 견학결과 전시관 혹은 홍보관의 사례임

○ 개요

- 개관예정인 박물관 건립 이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계획 및 박물관 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장
- 아부다비 최초의 전용 전시공간
- 개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위성사진을 스크롤로 전시하여 개발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

○ 공간구성

- 안내, 식음료, 전시회 기획, 교육시설 담당, 건물유지, 보수

○ 주요내용

- 아부다비 개발전후, 샤디아트 개발계획 홍보
- 비상업적인 예술전시회, 박물관 관련(전시, 출판, 안내 등) 교육
- 샤디아트 홍보영상, 관련 모형 제작·전시
- 각 시설별 설계가 인터뷰, 소개 등은 모두 터치스크린으로 제공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
- 전시회에 참여하는 작가 등을 지원하여 관련분야의 호응을 이끌어냄

2) TDIC 전시관: 사디아트 문화지구(SAADIIYAT Cultural District)

□ 사례소개

〈표〉 사디아트 문화지구 개요

이름	◦ Saadiyat Island (행복의 섬)
규모	◦ 27km ²
건설비용	◦ 270억 달러
건설목표	◦ 고급문화중심지, 고품질 관광단지
완공시기	◦ 2018년
공사단계	◦ 1단계 사업 : 2012년까지 미술관과 문화시설 조성 ◦ 2단계 사업 - 2018년까지 29개 호텔과 15만 명 거주를 위한 주거단지 조성
토지이용계획	◦ 호텔, 마리나, 박물관, 주거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
특징	◦ 르부르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 아부다비 지점 건설 ◦ 페라리월드 건설 - 세계 최대 실내 테마파크



<그림> 사디아트 문화지구 마스터플랜

- 아부다비 해안 500미터 전방에 위치한 천연 섬 여행지
- 국제상거래 중심지로 많이 알려졌지만 해안가 주택가를 찾는 시민들, 깨끗한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휴일을 찾는 관광객들이 방문함
- 걸프 해 최초의 갯벌과 골프장으로 많은 스포츠팬들이 모이고 Pritzker 상을 차지한 다섯명의 개인 건축가들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소
- 14만 5천명의 주민을 위한 주택시설은 27km² 넓이의 7개의 부 지구에 포함
- 12km의 고속 도로, 10km 경찰 네트워크 그리고 3개의 남북 섬 다리들로 쉽게 이어지며, 문화와 공동체는 최신통신수단으로 연결
- 아부다비 외곽에서 5분 만에 접근가능하며 국제공항에서 20분, 두바이에서는 1시간 소요
- 주요시설로는 사디아 해안 골프 클럽, 완비된 10개의 빌라들, 문화 예술 센터, 샌트 레지스 샤이아 아일랜드 리조트, 아부다비 파크 하얏트 호텔과 주변의 빌라들,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춘 사립 바닷가 몬테 카르로 사이앗이 있음
- 마을 건립 1 단계가 완료되었으며 가게, 식사 지역, 여가 시설과 스포츠 장들이 건설 노동자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음
- 현재 진행상황: 2014년 첫 번째 박물관이 오픈 예정이었으나, 재검토중임. 기초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완공 시기는 미정임

※ 2006년 아부다비 관광부(ADTA)가 이 섬의 소유권을 차지하였으며 개발목적은 우선 관광 개발 & 투자회사(TDIC) 지시에 따라 기본계획 설계가 고안됨

□ 주제: 랜드마크 건축물 유치 및 문화특구 조성을 통한 도시활성화

- 목표 및 전략: 문화단지 조성-4개의 대형 미술관·박물관·공연센터 건립 진행 중
 - 구겐하임 아부다비 미술관(Frenk Gehry 설계)
 - 루브르 아부다비 박물관(Jean Nouvel 설계)
 - 공연예술센터(Zaha Hadid 설계)
 - 자에드 국립박물관(Foster+Partners 설계)

○ 주요내용

- 개별 시설의 건설은 아부다비에서 할 예정이고, 개별 재단(구겐하임, 루브르 등)에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고 작품을 대여하거나 독자적인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샤디아트 아일랜드도 이러한 박물관을 조성하여 문화특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부다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샤이다트 섬을 걸프 지역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문화 중심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아부다비 지속가능한 개발계획(ESTIDAMA)에 의해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에는 박물관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즉, 건물디자인)과 전시품들의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홈페이지 참조 <http://estidama.org/>)
- 도시 내 박물관단지의 전시기능 이외에 반드시 추가 건설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는 식음료 관련 시설 등 기본 편의 시설은 물론 이고, 교육 시설이 있어야 함
- 교육시설은 전시회의 주제에 맞추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러한 워크숍은 전시회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을 주고, 전시회에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5개 이상의 박물관이 한 곳에 지어지게 된다면 그 주변에는 온 가족 또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머물며 박물관을 살펴 볼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것임 (숙박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그림] 샤디아트 마스터 조감도플랜
(출처:샤디아트 홈페이지 <http://www.saadiyat.ae/en/>)

District Map 사디아트 구 지도



[그림] 사디아트 지역 지도 (출처: 사디아트 홈페이지 <http://www.saadiyat.ae/en/>)

○ 각 지역(zone)별 특성

- 수도에서 500미터 남짓 떨어진 이 천연 섬은 환경보존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함
- 사디아트 해변가
 - 9km의 때 묻지 않은 깨끗한 해변에 뻗어있으며, 최고급 5별급의 리조트들과 골프의 전설 개리 플레이어가 설계한 해안 골드 챔피언십 경기장에 결합돼 있음
- 사디아트 선착장
 - 이 섬의 상업 중심가이며 비즈니스, 주택가, 소매 지역들로 어우러져 있고 사디아트 섬 선착장이며 천 개 선박의 정박 위치이기도 함
- 사디아트 산책로
 - 주민들을 위한 중심지로 해변 안 큰 산책보도가 있으며, 가족활동 센터들과 가정 주택들이 있음
- 사디아트 리저브(자연보호지역)

- 자연 보호 구역으로 산림 나무 클러스터가 중첩된 해안 골프 대회 경기장 코스임
- 사디아트 함수호
 - 주거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보트 및 여가활용 장소임
- 사디아트 노후정비시설
 - 은퇴한 거주자들의 주택과 배타적인 리조트시설, 상가들이 자연 속에 입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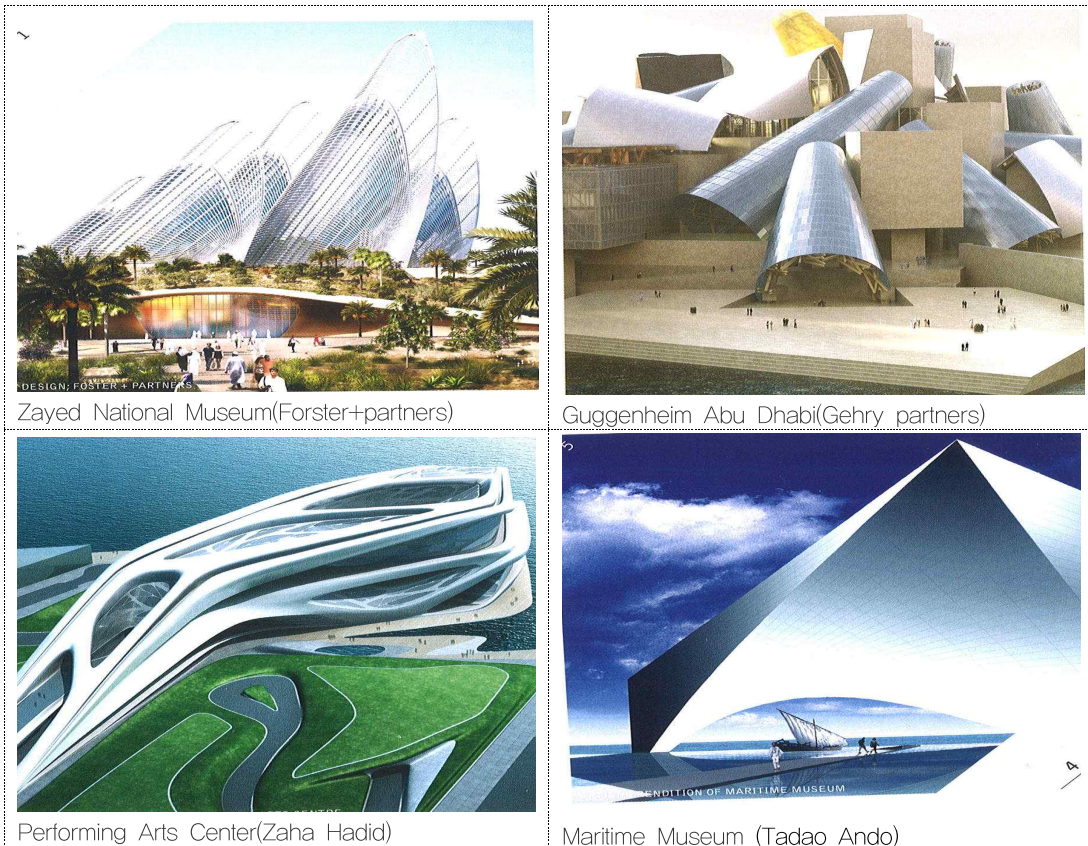
□ 주요특징

- 사디아트의 한 전체 지구는 문화와 예술에만 전념하며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독특한 전시, 영구적 수집들, 작품 및 공연과 함께 현지 지역 및 국제적인 방문자들을 반기는 세계문화지구의 중심을 지향함
- 주요기관으로는 Zayed 국립 박물관, 아부다비 구겐하임 박물관, Maritime Museum, Performing Arts Center,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Jean Nouvel), Manarat Al Saadiyat, 아랍에미리트연방관 등이 있음
 - Zayed 국립 박물관: 아랍에미리트연방의 국립박물관. 후반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의 후반 이야기, 아랍 에미리트의 지역 통일 이야기 역사와 전세계의 문화적 연결을 전시함¹⁾
 - 아부다비 구겐하임 박물관: 세계적인 현대 예술과 문화에 대한 업적 소개
 - Maritime Museum: 이 지역의 항해 역사 및 아라비아만의 생활상 전시
 - Performing Arts Center: 여러 가지 장르와 음악, 무용, 전통연극 시연
 -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아라비아의 세계 최초의 유니버설 박물관이며 고대에서 현대까지,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미적 표현을 수용하도록 설계
 - Manarat Al Saadiyat: Saadiyat의 유래, 비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됨. 아부다비 예술 갤러리를 갖추고 있음. 미술갤러리 3곳 및 행사전용 갤러리, 판매 센터, 극장 및 레스토랑 등 세계 각국의 국제적인 컬렉션과 TDIC 전시회 개최
 - 아랍에미리트연방 관: 포스터 + 파트너에 의해 설계, UAE의 역사를 강조한 건축설계 및 열효율이 높은 구조설계로 주목받음

1) <http://www.zayednationalmuseum.ae/>

<표> Manarat Al Saadivat 의 교육시설 운영예시

기간	전시내용	교육내용
2011.3 ~ 2011.6	메소포타미아 문명	설형 문자/뿔기 문자 타블렛, 실린더썰 만들기 등 실습
현재	사진 전시회	디지털 사진에 관한 워크숍,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 초기의 카메라원리를 이용한 것)에 관한 워크숍, 초중고등학교의 수업과 연계하여 견학



[그림] A center for global culture : 5 musuems (출처: wsaadiyatculturaldistict.ae)



[그림] 사디야트 문화지구기관 위치, 레저 및 숙박시설, 교통 수단 지도와 설명
(출처: 사디야트 홈페이지 <http://www.saadiyat.ae/en/>)

□ 시사점

- 박물관이 도시문화특구중에 중요한 기능적, 도시미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교육기능까지 담당함
- 문화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 도시 내 박물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그 지역의 역사와 현재 도시의 변화하는 시간성을 전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도시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아부다비 문화산업의 부흥포인트로 작용함. 즉, 담당기관(TDIC)구축을 통해 마스터플랜의 미래방향 설정 및 계획 세부사항 조정, 광자원 개발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TDIC는 주민과 관광객 간의 인식향상에 기여하며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시, 공공 및 교육 행사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시 및 행사 프로그램 확대에 일조함

□ 현장답사 주요사진



(3) 사례답사

1) 마스다르 시티

□ 사례소개

〈표〉 마스다르시티 개요

이름	◦ Masdar, 아랍어로 ‘원천’ 의미
설계사	◦ Foster+Partners
규모	◦ 6.5km ²
건설비용	◦ 220억 달러 → 187억 달러 (15% 축소, 2010)
건설목표	◦ 탄소제로, 폐기물제로의 친환경 도시 건설
완공시기	◦ 2016년 → 2020~25년 (연기, 2010)
공사단계	◦ 총 7단계공사 중 1단계(~2015, 6개 빌딩, 주거단지, 본부건설) 진행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30%), 비즈니스&연구단지(24%), 상업지구(13%), 과학&기술재단(6%), 서비스&운송업 (19%), 도시&문화개발지역 (8%)
수정계획 (201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수화계획 → 마스다르시 외부의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담수 사용 ◦ 폐기물에너지전환장치를 사용한 재활용 → 에너지효율이 낮아 포기 ◦ 모든 건물 1.5m 높이로 건설하려던 계획 → 마스다르 본부만 적용 ◦ 보행자, 자전거도로(지상), 무인전기차, 버스교통망(지하) 포기 → 지상에 길을 넓혀 보행자와 전기자동차용 도로 건설

-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의 도시이면서, 에너지 부국임에도 오직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음
- 현재까지 대학원 및 연구소, 기숙사와 본부만 건설됨 (7단계 중 1단계 진행 중)
- 마스다르시티 마스터플랜은 Foster+Partners에서 진행하였음



〈그림〉 마스다르시티 조감도

[참고] 마스다르시티 개발주체(마스다르 社)

※ 마스다르 사(社) (A Mubadala Company)

- 아부다비 경제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정부 소유 투자 회사로 항공, 우주, 에너지, 의료, 산업, 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 부동산,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업을 운영·추진하고 있음

설립년도	◦ 2006
건립/운영주체	◦ 정부소유 투자회사 (CEO:Dr. Sultan Ahmed Al Jaber)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World Future Energy Summit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건설과 신재생에너지 관련상품 홍보 ◦ 5개의 부서로 조직됨 (Insitute, Capital, Power, Carbon,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MIT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소 - 캐피탈: 유망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기업 투자 및 지원 - 전력: 신재생발전사업 개발 및 운영 - 탄소: 에너지효율, 폐기물, CCS 등 탄소배출량감소 프로젝트관리 - 도시: 신재생에너지, 클린기술 클러스터 조성 ◦ KOTRA와 2010년 3월 MOU를 체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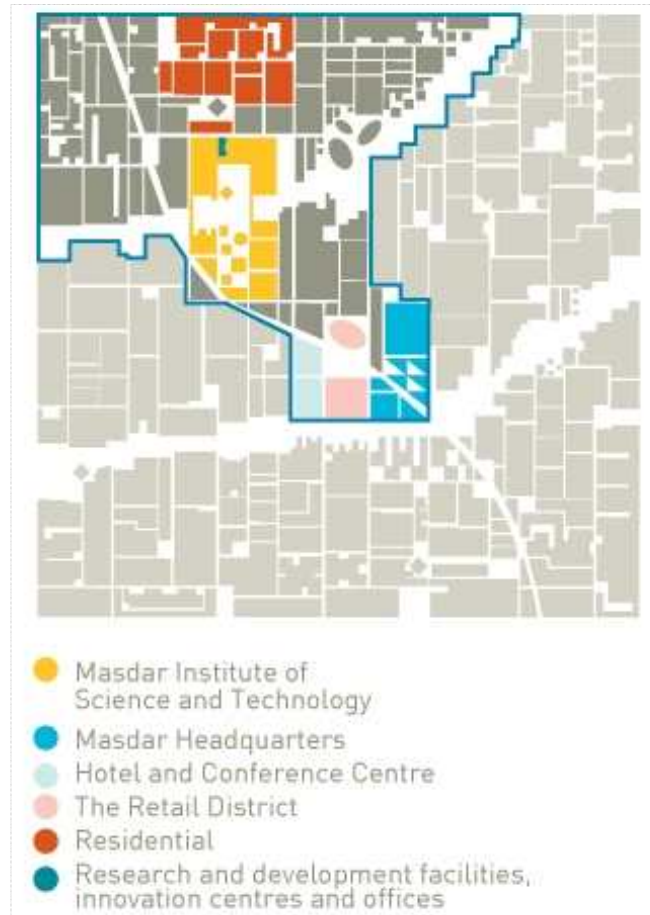
홈페이지 참조 (<http://mubadala.ae/>)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4일(토) 오전 9시
- 장소: 아부다비 마스다르사 회의실
- 내용: 친환경 녹색신도시 조성과정 기록현황 및 계획기법 조사
- 참석자: Ms.Ameera(Guide Tour 담당자), Mr.Inaki 외 3인



□ 주제: 친환경적 도시설계기법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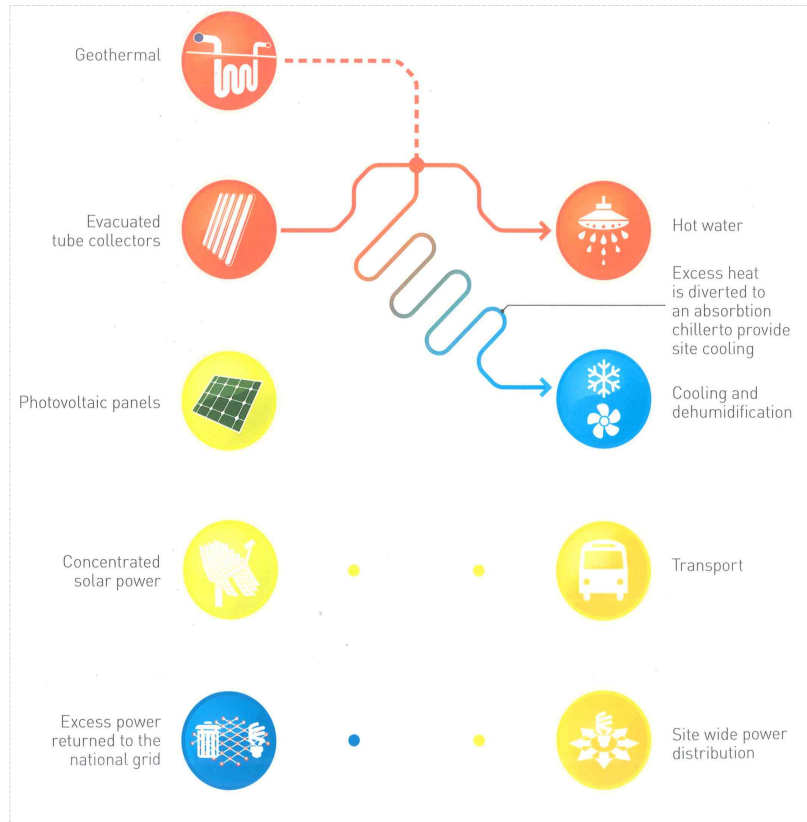


[그림] 마스다르시티 토지이용계획

○ 주요내용

- 담수화계획, 폐기물에너지전환장치를 사용한 재활용, 무인전기차 및 버스교통망 등 여러 가지 계획요소들이 있음
- 탄소제로도시로 만들어져서 주차장에서 연구소 및 대학원까지는 PRT²⁾ (Personal Rapid Transit)로 이동하고 내부에서는 걸어서 이동함
 - 현재는 한 대당 4명의 성인이 탈 수 있고 도시가 완성되면 PRT 구간이 확장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마스다르 시티에서 PRT를 만드는데 많은 탄소를 발생시켰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인 접목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중임)

2) PRT(Personal Rapid Transit) : 태양열로 전기를 충전하여 충전된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무인시스템으로 24시간 운행함



[그림] 마스다르시티 내 친환경 계획기법 다이어그램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친환경 계획기법

- 마스다르시티는 7가지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음; 계획, 에너지(동력), 수자원, 폐기물관리, 교통체계, 친환경재료 사용, 재생에너지의 선순환체계
 - 도시계획, 공학, 건축분야에서 에너지생산이 가능(전기, 용수 등)한 통합적 계획을 추진함
 - 수동적이고, 값비싼 최신 도구를 사용하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을 의도함: 도시·건축물의 형태, 시스템, 관리체계의 최효율, 최적화된 성능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
 - 신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으면서 이를 활용하는 데 대한 비용이 높은 편이므로 계획가들은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함
- 마스다르 시티 내 연구소 및 대학원 입지
 - 대학원과정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학과들이 대다수이고, 연구소는 태양, 바

람, 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연구를 진행 중임

- 국내외 학생들을 함께 교육시키며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학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지원되고, MIT와 공동으로 연관된 과정이 많음

□ 현장답사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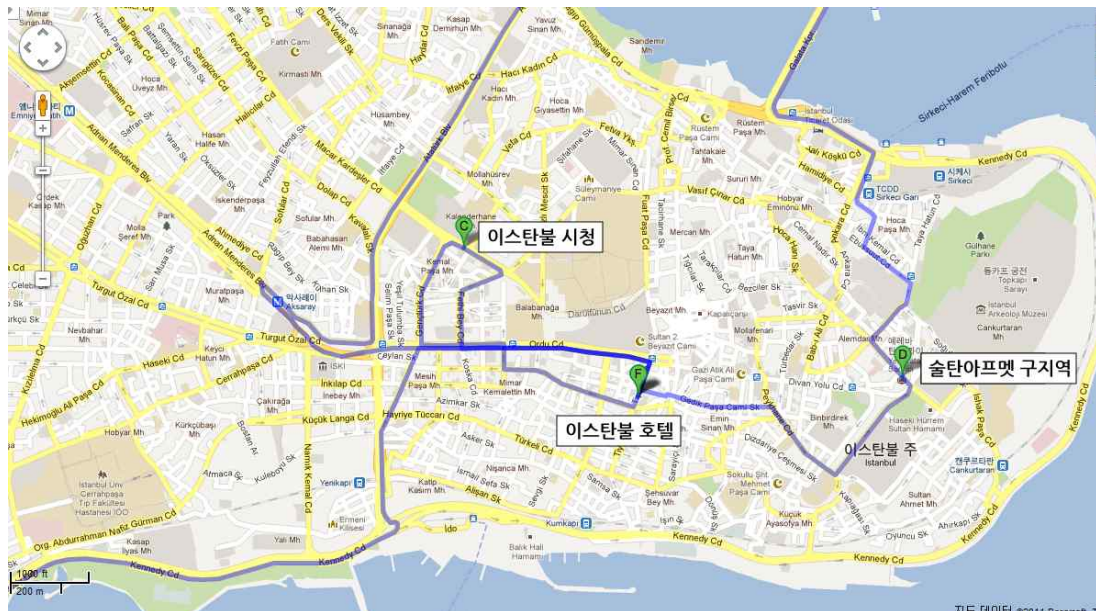
2. 이스탄불, 터키 (Istanbul, Turkey)

〈표〉 터키 개요

수도	앙카라 (Ankara)
인구	약 8천만명 (2008년 기준)
면적	780,580km ² (한반도의 3.5배)
주요도시	이스탄불(Istanbul), 이즈밀(Izmir), 콘야(Konya)
주요민족	터어키(Turkish, 90%), 쿠르드(Kurd) 및 아랍(Arab, 10%)
주요언어	터키어(Turkish, 90%), 쿠르드어(Kurdish) 및 아랍어(Arabic, 10%)
종교	회교 (Moslem, 98%), 헌법상 정교분리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늦음
통화	리라(TL:Lira), 1USD =약 1.8TRY, 1TRY=620KRW
기후	1월 평균 약 6℃
특성	유럽과 아시아간 동서문화의 십자로에 위치해 있는 터키는 과 거 히타이트, 로마, 비잔틴, 오스만 대제국이 번성했던, 소위 "문명의 발상지"로 일컬어지고 있음. 터키는 다양성과 역사적인 깊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여러가지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함. 애국심이 상당히 강함

(1) 방문도시 개요

[그림] 이스탄불 사례답사 위치도



[표] 이스탄불 개요

인구	약 8천만명 (2008년 기준)
면적	1830.92km ²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스포루스 해협의 남쪽 입구에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음 - 1923년까지 1,600년 동안 수도였던 이스탄불에는 그리스 · 로마시대부터 오스만 제국시대에 이르는 다수의 유적들이 분포

(2) 기관방문

1) 터키건축정보센터(YEM)

□ 기관개요

[표] YEM개요

설립년도	◦ 2006			
건립/운영주체	◦ 재단			
기능	◦ 건축가, 전문 매니저, 엔지니어 등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정보 제공 ◦ 건축 재료의 상설전시, 해외 무역 박람회 추진, 간행물 발간, 정보문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가상건축박물관	◦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터키건축정보센터의 온라인 박물관임 ◦ 터키건축정보센터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단순한 자료읽기를 넘어 방문의 느낌을 주고자 함			
전시내용	◦ Archiprix International (세계 건축 · 도시 · 조경설계 졸업 작품 공모전) – 수상작 전시 ◦ ProSteel 공모전 – 3주 동안 이스탄불에 전시 – 터키 구조 철강 협회와 Borusan Mannesmann과 YBM 주최 ◦ 사진 전시회 – IFSAK (이스탄불의 사진 및 필름 아마추어 협회)와 협력, 개최			
기타활동	컨퍼런스/세미나	YEM 컨퍼런스	건축/디자인	– 다양한 주제 논의 – 설계 · 건축 ·건설 산업 종사자, 디자이너, 건축가, 학생 등 참여
		EKODesign 회의	건축/생태	
		주택 컨퍼런스	주택	
	박람회	국제 빌딩 무역 박람회	–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정보문서센터	출판물 발간	– 실물도서 (센터 서점에서 구입 가능) – 전자문서 형식	
		도서관	– 백과사전, 서적, 잡지, 카탈로그 보유 (건축, 도시, 문화유산, 미술 등 다양한 주제)	
	회의	– International Prefabricated Concrete Industry Congress – Building Materials General Assembly		
	공모전	– 전시회와 연계하여 개최		



[그림] YEM 내외부 전경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6일(월) 오후 3시
- 장소: 터키 건축정보센터 회의실
- 내용: 가칭)건축도시박물관,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모델 및 DB구축, 활용정책 현황 조사
- 참석자: Neslihan Kucukaslan (Coordinator) 외 5인

○ 건립배경

- 1968년 국제건축재료연합의 회원가입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회원국 중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임

○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

- 총 5개의 조직으로 구성됨
- 연구팀: 건축가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과 대중에게 제공하고, 때로는 센터에서 정보를 생산하여 건축가, 기업, 대중에게 제공함
- 정보팀: 정보를 저장하고, 타 회사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기도 함. 현재 터키의 건축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레포트 등을 작성하며, 외국에 있는 건축가들을 모셔와 터키 건축가들과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함
- 전시팀: 건축과 관련된 전시회, 박람회 등을 기획, 진행함. 현재는 외국회사와 같이 일하고 있으며 YEM내부에서는 거의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함
- 출판팀: 건축과 관련된 잡지를 출판하고, 건축재료를 소개하는 카탈로그 발간 뿐만 아니라 역사건축에 관한 책도 발간함.(단행본은 1년에 4~5권정도 출판하고 있으며, 1973년부터 출판팀이 만들어짐)
- 전산팀: 웹사이트(<http://www.yem.net/yem07/default.aspx>) 및 건축박물관에 관한 온라인 뮤지엄(<http://www.archmuseum.org>) 운영

○ 시설관련

- 현재 시설로 이사한지는 3~4년되었고, YEM만을 위한 공간임
- 중앙홀에서는 행사, 세미나, 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등을 개최함. 건축에 관계된 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나 외부에서도 공간을 사용하기 원할 경우 제공하기도 하며 공간분할을 용이하게 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최대 5~600명 수용가능한 공간임.
- 사무실의 1층은 마케팅 및 영업파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수집하는 IT파트, 출판(잡지, 출판, 카달로그) 및 온라인 파트, 회원관리 파트가 있음
- 사무실의 2층은 광고파트, 전시파트, 행사기획파트, 기획파트, 전시회 및 박람회파트, 휴게실이 있음 (한파트당 최소 5명 ~ 최대 20명임)
- 재료컬렉션이라고 작년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스탠볼밀라노·서울대구 등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재료들을 전시하고 있음
- 그 외 직원들을 위한 식당과 서점이 있음
- 서점은 건축과 디자인에 관계된 모든 서적들이 있음

□ 주요내용: 박물관운영 측면

○ 운영관련

- 운영주체는 민간이나 사단법인처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은 없음 (건축가협회와는 다름)
- 재정확보는 카달로그를 만들 때 기사에 대한 수입, 박람회를 참가할 때 참가비, 잡지와 책등의 출판을 통해 들어오는 제정이 있음
- 외국 건축가들과 터키 건축가들의 교류 등은 행사를 지원하는 스폰회사(광고회사)가 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음
- 마지막으로 내부에 건축관련 서점이 있어 여기서 얻는 수익 등으로 운영함
- 인력규모는 전시팀까지 포함하면 100여명, 전시팀을 제외하면 70여명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나 엔지니어들이 주를 이룸

○ 건축관련 DB구축

-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정보 수집 및 저장
- 특히 건축에 관계된 재료들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여 건축가와 건축재료상, 건축 재료상과 건설업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함
- 건축재료 콜렉션 역시 온라인 상으로 정보를 저장하며, 한 건축가가 했던 작품들을 스캔하고, 실제 작품을 모두 돌려줌



MATERIALS MATTER™

From sparking inspiration to solving a design challenge, materials have the power to transform ideas into reality.

We believe the right material choices can invigorate design, revolutionize industries and create better, more sustainable environments.

◀FROM IDEA TO SOLUTION: WE HELP YOU FIND THE RIGHT MATERIALS

Material ConneXion is a global materials consultancy that helps companies innovate through smart materials thinking. Too often, designs are limited by the choice of materials. We expand design opportunities by providing insight into material solutions that will enhance the performance, aesthetics and sustainability of your designs. With offices in New York, Bangkok, Cologne, Daegu, Istanbul and Milan, our international network of material specialists offers a global, cross-industry perspective on materials and their potential u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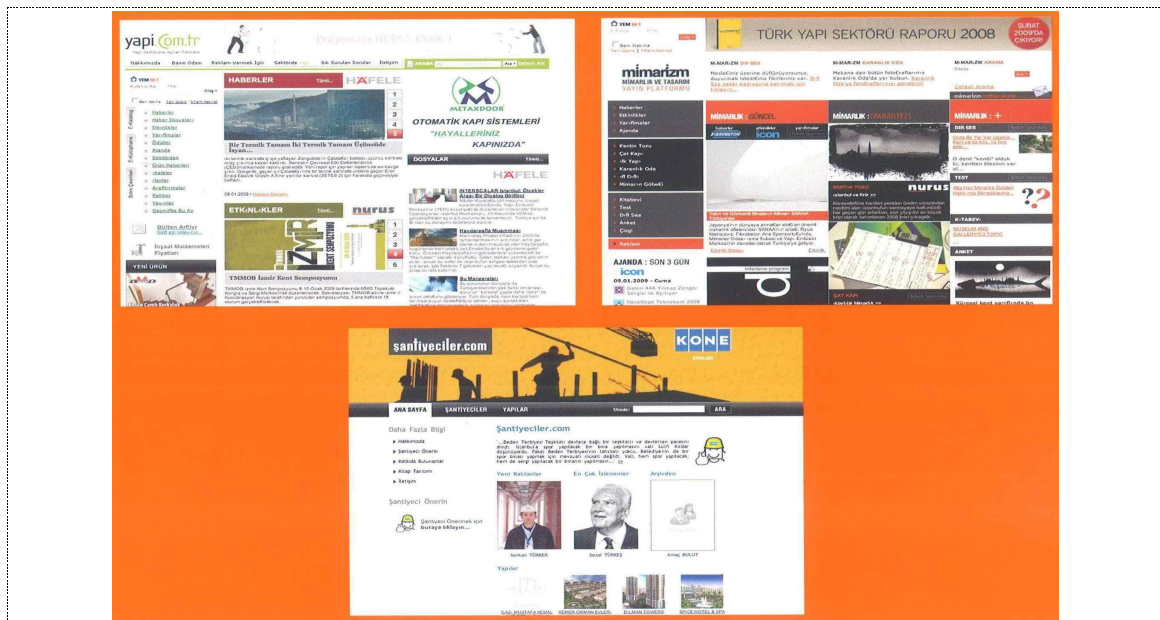
 <p>MC# 6797-07</p> <p>Soft, lightweight stretch fabric that offers form-fitting support. This thin, breathable fabric improves micro-circulation and muscle expansion both during physical activity and when at rest. It incorporates two-way stretch like LYCRA® which has excellent recovery and is highly chlorine-resistant. It offers UV and UVB protection (UPF 50+) and is quick-drying. Applications include clothing, swimwear, sportswear, and leisure apparel.</p>	 <p>MC# 6603-03</p> <p>Flax masterbatch additive for decorative and performance aspects of molded plastics. The flax is compounded with polypropylene (PP), PET, and PVC resins. The flax fibers offer the greatest stiffness of any untreated natural fiber, being close to glass fiber having a tensile modulus greater than E-Glass and a tensile strength that is 80% of E-Glass. The thickness, stiffness and translucency can be customized. It can be used for stand-alone products or combined with color to produce a customized masterbatch. Applications are for packaging, automotive, and electronics.</p>	 <p>MC# 5056-06</p> <p>Woven mesh that combines natural fibers with thin metal mesh. Twisted paper fiber (22X), cotton (8X), and cold drawn steel (50X) are woven together and, based on weight, creating a mesh-like structure that maintains some shape retention. The mesh is available in bronze, steel, copper, mirror, stain-free, and light-resistant finishes are available. Applications are for carpets and floor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environments.</p>	 <p>MC# 6808-01</p> <p>Sound and thermal insulating cellulose fiber made from 100% recycled paper and 20% natural boron. Overlaid fibers and boron acid, which ensures complete fire safety and protection against insect infestation. The insulation contains no asbestos, synthetic chemicals, or carcinogenic fibers, and it is harmless, biodegradable, lightweight, easy to install, and is resistant to mold and condensation. Applications are for construction insulation for homes, residential buildings, and offices.</p>	 <p>MC# 2239-07</p> <p>Dimensional surface panel material created with a proprietary manufacturing process to mold a melamine surface onto a backing of engineered wood such as particleboard or plywood. The core is sandwiched and molded with a melamine sheet to produce a dimpled surface. There is a lead time of 2-4 weeks for standard panels. Available finishes in white or black high-gloss. Available for doors and door inserts, furniture, wall coverings, ceilings, furniture and display counters.</p>	 <p>MC# 6603-02</p> <p>Photochromatic multilayer polymer made of 80%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and 18% thermoplastic elastomer (TPE). The TPE is the outer layer of the sheet, containing the photochromatic pigment that enables the bottle to turn (in this case, to turn red) when exposed to sunlight or UV radiation. The hue, shade, and color of the bottle as well as the color change can be customized. Current applications for the molded pieces are for packaging and electronics.</p>
 <p>MC# 5670-06</p> <p>Decorative translucent vinyl sheet in a wide range of colors and effects. The sheets are 100% polyvinyl chloride (PVC) that has been manufactured using an embossing process in which micro-grooves cause diffusion of light and a 3-D effect. Translucent and transparent versions are also available. The sheets come in 39 colors and are sold in sheets with three different thicknesses. Applications are for packaging, fashion accessories, POP and event design and interior accents.</p>	 <p>MC# 6795-01</p> <p>FDA approved antimicrobial additive for fibers that are approved to protect against 99.99% of bacteria. This technology uses silver and copper for elements bonded to a ceramic matrix that are then built into the fiber resulting in permanent antimicrobial protection. The fiber can also be spun into any yarn form and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will not be compromised. The antimicrobial properties will not wear or wash off. Weight, color, and texture vary depending on the client's specifications. Applications are clothing, blankets, carpets, wall coverings, auto interiors, home furnishings, and craft felt.</p>	 <p>MC# 6805-01</p> <p>Translucent Kapok fiber. This fiber consists of silk cellulose, 13% lignin, and 23% pectin. Kapok is harvested from the fluffy fiber surrounding the seed of the tropical sapot tree, also known as the cashew tree. Kapok is the lightest natural fiber in the world, with a density of 0.35 g/cm³ (22 lb/yd³) it is nearly five times as light as cotton. It is non-wrinkle, non-iron, odorless, and absorbs oil. The Kapok fibers are hollow, resulting in a product that is very buoyant, absorbing as much as 30 times its own weight in water and acts as a thermal-regulator. Applications include stuffing for pillows, mattresses, upholstery, sleeping bags, and jackets.</p>	 <p>MC# 6801-02</p> <p>Decorative glass mosaic tiles that comprise a range of different diameter circles plus random chips. The glass is back painted different colors and backed with glass fiber mesh to ensure good spacing between the mosaic pieces. The tile edges are smoothed in some dur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avoid dangerous sharp edges and improve ease of handling and installation. Custom color blends are also possible. Applications are for walls, backslashes and vertical surfaces by kitchens, bathrooms, swimming pools, spas, resorts, showrooms, and residential and commercial environments.</p>	 <p>MC# 6659-03</p> <p>Custom hexagonal wallpaper that uses sheets of glass for decorative and textural effect. These wallpaperers are backed with a non-woven fabric for strength and are covered with small pieces of glass. The entire surface of the wall covering is then vapor coated with silver to create a cool or a kind design. The product is only available per customer request and in eight metallic colors: silver, green, violet, white, gold, copper, brown, and black. Applications are for interior design, commercial buildings and merchandising.</p>	 <p>MC# 5916-06</p> <p>Antimicrobial mesh fabric with silver coatings that is available in stainless steel, bronze, copper, silver, or gold and black. Different hues of that light silver are woven on rectangular grids and from walled at the edges in order to create a unique design. Custom colors and finish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The mesh is available in a range of mesh sizes and is available in a range of mesh sizes and is available in a range of mesh sizes. Applications are for wall and ceiling coverings, photo displays, wire cloth because interior and exterior, and accessories.</p>

[그림] YEM에서 진행중인 건축재료별 전시프로그램

- 건축가에 대한 자료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처 등이며 스케치나 도면 등은 별도로 수집하지는 않으나, 37년간 발행한 YAP(터키어로 건물)이라는 국제적인 잡지에 수록된 정보는 가지고 있음

○ 가상박물관 운영 배경 및 관리

- 현재 터키에는 건축박물관이 없어, 향후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라는마음에 가상박물관을 운영하게 됨 (도시박물관도 없음)
- 반드시 센터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고 정부에 건축관련 담당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임
- 박물관에 대한 시도는 대학에서도 있음
- 가상박물관은 각종 개인 및 기관의 기록보관소에서 숨겨지고 있는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터키 및 세계 건축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가상박물관 홈페이지는 좌측에는 갤러리, 소장품, 미술관, 서점, 박물관 연결기관, 보도자료, 우측에는 홈페이지의 언어 선택과 사이트맵, 건축박물관의 설립자와 운영진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메뉴와 박물관 일정, 중앙은 건축박물관의 주요 갤러리 및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련자료를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됨



[그림] YEM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 시사점

○ 국내의 건축도시박물관 건립측면

- 터키와 한국은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음.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건축이 이루어졌고, 터키도 공화국이 이루어진 후 건축이 이루어짐
- 다른 나라들의 경우 실질적인 박물관 건립 이후 온라인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터키와 한국의 경우 반대임
- 터키건축정보센터의 경우, 박람회와 전시 등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으며, 향후 박물관이 건립되면 서로 협력하여 기획해볼 수 있을 것임
-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도시와 건축을 모두 다루고자하는 것이라면, 터키의 SALT라는 단체가 있음. 건축에 관계된 다양한 자료 수집과 전시를 수행함

□ 현장답사 주요사진



[그림] YEM 내부

2) 이스탄불 문화유적보호부서

□ 기관소개

○ 담당조직

- 이스탄불은 풍성한 역사적인 지역으로 역사보전지역이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한 곳임. 1981년 프랑스 정부가 문화유적관리국을 건립
- 현재 60여명의 직원들이 있으며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 터키정부 관광청(문화재관리국)에서 각 시별로 현황 및 관리플랜 등을 관장하고 세부적으로 해당지역(이스탄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조정·지원
- 이스탄불시는 보호국, 관리국, 도시개발국 등이 이에 대한 임무가 있고, 해당 부서마다 프로젝트를 분배하고, 서로 기획을 하여 기획안을 올리면 위에서 서로 종합 및 조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로젝트별로는 EU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프랑스, 독일 같은 오스만 제국 말기 당시와 근접했던 나라들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복원하는데 지원함
-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스탄불 특별시 소유인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정치적 배경에 따라 어떤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어떤 것은 독일, 어떤 것은 러시아에서 더 지원을 관여하기도 함



[그림] 문화유적보호부서 전경

○ 주요업무

-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부분계획을 마련하고, 복원 후 적절한 부서에 양도하는 것이 문화유적보호부서의 주된 업무임
- 보존지구 내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을 선정하여 기초작업을 하고 단계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을 잡음
- 프로젝트가 완결되면 완결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올리고 유네스코에서 복원작업의 과정 및 완결된 결과들을 보고

받고 있음

- 술탄아흐메드모스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곳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각별히 관리하고 있음(관리대상 선정이유: 주거지역이 밀집되고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
- 복원사업과정 중 전선, 수도 등 토지관리가 쉽지 않아 아주 주의를 하면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외 Zone내 허가없이 짓는 건물 규제

□ 방문개요

- 회의목적: 지역건축자산(문화유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련 정책조사
- 회의일시: 2012년 1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이스탄불³⁾ 문화유적보호부서 회의실
- 참석자: Cem Eris (Director of Historical Sites Protection), Yasin Dilmen (Programmer) 외 5인



[그림] 문화유적보호부서 방문회의

3) ○ 이스탄불의 도시계획 도면, 역사문화자원 및 보존지구 분포도면
- <http://www.ibb.gov.tr/en-US/Organization/Pages/OrganizationalChart.aspx>
- <http://gis.fatih.bel.tr/webgis/>

○ 복원사례

－ 사례 1: 종교건물인 칼리치 건물 보전

- 19세기 오스만 제국 당시에 지어졌던 칼리치 건물 보존. 옛 자원들을 헐지 않고 그대로 보존·관리, 그 가운데 일부는 디자인을 새로 해서 건축함

－ 사례 2: 모스크 유적지

- 보아지침 해역 가운데 하나의 모스크 유적지를 1940년대부터 복원·관리를 하면서 옛 자료에 의해서 그 당시의 디자인에 버금가는 것으로 복원작업 중임

－ 사례 3: (교육, 문화관련) 도서관

- 이스탄불 시에 문화재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하의 부서에 이 보전지구 등에서 일부 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관 복원 작업들을 진행

－ 사례 4: 술래마니에 잡 모스크

- 과거의 무덤과 관련된 종교적인 유적지로 황제와 부인과 관련된 묘지, 술래마니에 잡 모스크라고 하는 이스탄불에 가장 유명한 모스크 가운데 한 지역의 복원을 관리하며 예전 자료를 토대로 복원작업 중임.

－ 사례 5: (수도) 수도와 관련된 (오늘 보게 될) 물 저장창고

－ 사례 6: 일반 주거지

- 오스만 당시 장교가 쓰던 건물로 위치는 호텔과 맞은편에 이스탄불 대학이 있는데 그 인근 건물이며, 현재 이스탄불 특별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럽에서도 저것을 복원하는데 지원하고 있음
- 유럽 가운데서도 프랑스, 독일 등 19세기 말기 오스만 제국 가장 근접했던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 사례 7: 특별지역

- 문화재 국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각별하게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되는 백만 평방미터의 특별지역, 안에 728개의 중요한 유적이 존재하며 2000개에 가까운 건축물이 관리대상으로 지정, 244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되었음.

－ 사례 8: 군사지역 관련 유적지

- 200평방미터의 지역으로 문화유적지 관리대상으로 이번 프로젝트로 복원관리, 그 중 특별히 비잔틴과 로마제국 당시에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4세기경 건축한 켈베르사쉬라고 하는 탑을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

– 사례 9: 터키이스탄불 지역

-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터키이스탄불 지역을 문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문화재를 어떻게 복원·관리하는 것이 좋은 지 2년 정도에 걸쳐 정부와 문화국과 대학 전문가를 구성해 관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 복원 목적

- 복원하고 관리하는 주 대상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유적지이므로 만약에 이것을 관리복원하지 않으면 이스탄불이 유럽의 대도시 지역 중 하나는 되지만 큰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
- 역사적으로 터키는 1000년 동안 중부아시아 터키 전역에 있는 지역을 살았던 곳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큰 유산지역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큰 일이라 생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임

○ 관리프로세스

- 관리하는 과정으로는 관광국에서 주도를 하고 세부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이스탄불은 이스탄불 특별시에서 관장을 해서 복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함
- 관광청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이스탄불 시에 산하국에서 보호국 임무, 관리국 임무가 있고 또 도시개발 임무가 있고 해당부서마다 프로젝트를 주고 기획, 보존지역국에서 기획안을 올리면 위에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가 진행됨
- 터키전역으로 보자면 이 보호국은 이스탄불 시 관할 국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터키 관광청 산하에 문화재 관리국, 보호국 또 박물관 관리국 등 여러 부서들이 있음
- 문화재와 관련해서 관리국이 앙카라에 있고 거기서는 각 시별로 문화재 현황 또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총괄

- 이스탄불 시 보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 등 계획은 시로도 보고가 되지만, 관광청 산하에 보호국으로 보고되고 심의를 거쳐 문화재·예술·건축·고고학·설계 기타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 심의를 하고 시로 시에서 시내 보호국으로 실행
- 역사지구 보호국이 모든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탄불 시는 특별히 있고 그렇지 않는 시도 있으며 특별시가 아닌 곳은 없는 곳도 많이 있음

○ 지역 규제 사항

- 전체가 한 지역으로 하는데 성벽으로 지역을 구분, 1450년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기 바로 전까지 관련된 지역을 구분
- 빨간색 부분은 특별히 성곽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등을 제한지역으로 하여 성벽 높이 이상 건물을 규제해서 성벽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별지정으로 제한
- 중간 파란색 해당하는 부분에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 시에서 건축법상 문화재 관련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끔 높이 면적을 제한하고, 그 규제 하에서는 지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한
- 버퍼존의 범위는 상하로는 7키로 정도 지역특성, 지역과 지형을 고려해서 구분
- 유네스코에서는 궁전 등 특별 관리하도록 요청한 상태이고, 확대한 부분은 이스탄불 시와 문화재 관리국가 특별하게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으로 선정
- 녹색지역에서 호텔을 복원하는 지 등은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짓거나 복원하는 등 훼손하지 않도록 함,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녹색지역(화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상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특별지역 이 밀집된 곳이라 관리가 쉽지 않아 관리국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지역.
-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파티구에서 해당구역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함, 간판이나 에어컨 환풍기 등은 골목의 상가 주인들과 의견을 통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구에서 관장

○ 지역내외 건물 가격차

- 호텔가격은 관련부서가 아니라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남,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은

과거 오스만 제국당시에는 그렇게 없었고 옛날 건물이 시 소유가 아닌 건물들은 호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수가 늘어난 것이고 문화재 측면에서 복원해서 호텔로 사용하는 것은 많지 않음

○ 그랜드파자르 지역

- 상가지역으로 무역의 중심가라 할 수 있고 그 옆에 이스탄불 대학이 있음, 오스만 제국당시에 썼던 건물인데 지금 복원해서 시(市) 국으로 끌려고 예정
- 예전에 교도소 건물을 용도를 변경해서 호텔로 사용, 이스탄불의 가장 고가의 호텔

○ 사유화 방지 등의 관리 : 시에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음

- 시에는 39개의 구가 있으며 그 가운데 녹색지역은 파티구에 해당, 파티구에서 세부적인 것을 주관. 시에서 현재 약 5000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구에 계획을 내리면 파티구에서도 시에서 계획을 받아 어떻게 시행할 지 결정, 그 계획을 추진
- 시가 공원조성이나 특별한 계획을 하는데 사유지가 들어가면 시가 협의함, 시가 지정해야 하는 지역, 공원조성, 기타 시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유지 구매가 필요하면 시행
- 성벽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그 안에 토지를 매입, 그린벨트 지정 전에는 개인소유였고 일체 건축허가를 내지 않아 방치되었으나 시가 2천 만불 매입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 시 예산 집행

-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하면, 건물허가세가 있고 건물유지세가 있고 신축하거나 공사하는 데 그 허가세를 내야 함
- 시에 예산가운데 60%는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
- 2004년에 특별시가 결정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복비(양도세(transfer tax)) (매매하거나 할 때 들어오는 세금에서 10%를 이 복원사업 용도로 결정,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사례가 존재함

- 무조건 100%복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계획한 리모델링비가 3만불인 경우, 개인 소유주가 3만 불을 내고 실제로 (사업) 하다보면 10만불 15만불인 경우 나머지 부분들은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경우는 소유주50%, 시지원 50% 한다던지, 어떤 경우는 100% 하는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정

○ 신규허가

- 건축신규허가를 낼 경우 높이, 규모가 얼마지 사전 신청 시 그 계획을 가지고 용도가 주택,상가,공장,호텔인지 용도와 설계에 대한 논의 후 허가
- 특별히 보호구역이 선정된 지역은 신규건축 신청 시 구 보호국에서 심의 후 주변환경과 적합성, 용도, 규모, 색상 등 체크를 해서 허가를 내줌

○ 연도별 보존현황

- 1875년도에 그려진 도면, 현재와 비교한다면 녹색부분은 옛날유적지 건물 지역이고 보라색 계통이 옛날건물이지만 주거용도 건물
- 1936년도에 최초의 이스탄불 시 계획, 그 당시 프랑스의 도시개발 모델로 시작
- 1950년도만 해도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만 해도 계획은 학자들에 의해서였으며 실제로는 1980년도 문화재 발굴, 보호국 등이 시행
- 1980년도까지 시가 보전지역 선정, 역사·유적지 보호 등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 무려 4만개 정도의 유적지가 훼손
- 1980년도에 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금의 프로젝트를 늦게나마 시행
- 유럽에서 여러 사례가 있는데 도로확장 등을 하다 보니 문화재 훼손이 많은데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보호하고 방지하는 프로젝트로 방향을 정함

○ 중장기계획

- 시에서 이스탄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사지역을 보호하고 있음. 지역, 특히 파티구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공조체제로 가서 이 보호국에서 관장을 해서 최소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 중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을 없애고 새로 재복원하는 것 까지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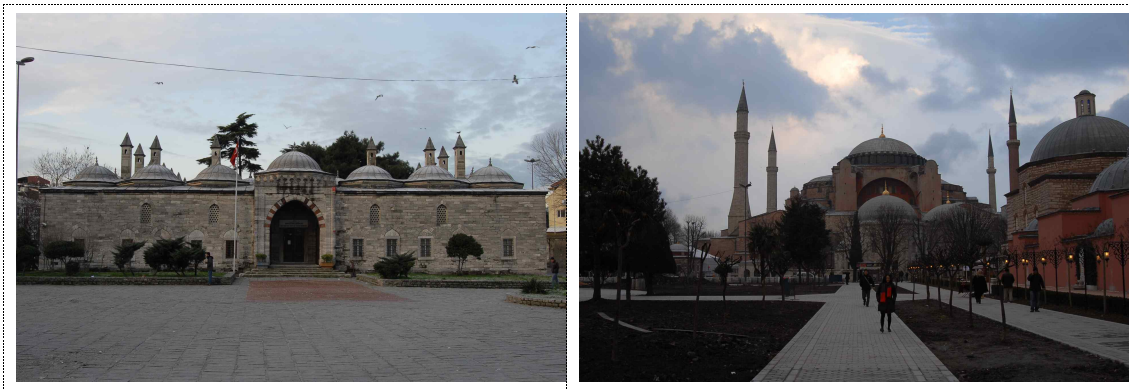
- 한 나라에 정치, 경제, 문화발전이 무관하지 않기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 이런 도시발전과 특히 문화발전·보호에 영향을 받음
- 이스탄불시 환경은 정치적으로 시장의 배경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고 하고, 현재 시의 프로젝트는 정치적 혼선없이 잘 진행되는 상황
- 중앙정부 예산지원
 - 특별히 직접적인 정부예산은 아니고 해당 시에서 이 용도로 예산이 오는데 그 기준은 이스탄불시가 1,300만임을 감안해 다른 시의 인구비율과 비교하여 예산을 받고, 스폰제 또는 세금혜택을 주고 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복원사업 비용
 -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시가 적은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3만불에서 5만불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 보호국에서 지정된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구지책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100%, 50%를 지정하고 은행에 크레딧을 하 게끔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
- 복원에 지원한 목재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 복원국의 목적이나 기능은 보호를 통해 환경적으로 유지하는 것까지이므로, 목재건물 같은 경우 매매를 할수 없도록(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나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방도가 없음
- 문화유적내 상업시설 운영
 - 궁전은 400년전부터 오스만 황제들의 황실이고 문화적 가치가 큰 지역이고 궁전은 박물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관광청에서 관리
 - 궁전은 관광청 소속이고, 지하 궁전은 이스탄불 특별시 관할 구역
 - 안에 카페테리아 같은 상업시설의 경우 그 수입은 시에 계약을 맺은 업체로 수입은 이스탄불 시가 관리

(3) 현장답사

1) 술탄아흐멧 구지역

□ 사례개요

- 100만㎡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대략 728개의 옛 유적들이 있고 거의 2,000여개 정도의 건축물들이 분포
- 총 24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됨. 복원사업과정 중 전선, 수도 등 토지관리가 쉽지 않아 아주 주의를 하면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복원 및 관리 주요대상은 이스탄불에 있는 옛 유적들임. 1,000여년에 달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유적들이 관리되지 않고 사라진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 주제: 지역문화자산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

- 술탄아흐메드모스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고, 이 곳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됨
- 관리대상 선정이유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 그 외 Zone내 허가없이 짓는 건물들을 규제함

□ 주요내용

○ 건축문화유산의 리모델링과 활용

- 시 소유의 건물이 아닌 옛건물들이 주로 호텔로 리모델링됨 (문화재 측면에서 복원하여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 그랜드파자르 재래시장지역과 이스탄불 대학 앞 에는 오스만 제국당시 쓰이던 건물이 있는데 현재 이를 복원중이며 이는 이스탄불시 위원회나 국으로 사용할 계획임
- 유럽으로 갈수 있는 에미뉴 기차역은 현재 역의 기능만 하고 있으나, 교통의 요지면서 역사적 의미도 있어 문화국에서 역로를 변경하여 숙박시설도 겸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에 있음
- 톱과크 구정 근처의 한 건물은 예전에 교도소 건물로 쓰였으나 관광청의 허가로 호텔로 사용 중이며 이스탄불에서 가장 비싼 호텔임.
- 1600년경에 세워졌던 모스크도 여전히 모스크로써 기능을 하고 있음

○ 문화재 복원

- 역사중심지역에는 약 5만개의 건물이 분포되어 있고 그 중 1만 5천개 정도가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들로 절반이 주거 건물이고 나머지는 모스크를 비롯한 주거 외 건물임
-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터키는 1950년대 민주주의로 전환했음. 1936년도 프랑스 도시계획전문가에 의해 최초 이스탄불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
- 이러한 계획은 학자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었음
- 1980년까지 이스탄불 특별시가 보존지역 선정을 하기까지 도로확장, 골목개선사업 등 시 발전사업 때문에 약 4만개 정도의 유물 및 유적들이 훼손됨
- 오스만 제국 당시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 지은 건물들을 다시 없애고 예전의 건물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임
- 물론 현실적으로 재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여 복원프로젝트를 준비 중임. 이는 유적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더 이상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충분한 자료와 검증, 증거가 있어야 함

-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이스탄불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이스탄불의 문화재들을 어떻게 관리 복원하는 것이 좋은지 정부, 각 대학, 문화국 사람들이 유적지관리에 대해 2년간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 및 진행함
- 술탄아흐메드모스크, 톱파크궁전만 세계문화유산 지역으로서 이에 유네스코에서는 이 곳에 한정하여 특별보호관리를 요청하였으나 이스탄불시와 문화재관리국, 역사보존국에서 문화지역과 인근지역이 무관하지 않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역 내에 도시의 핵심시설을 배치하여 도시의 중심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
- 이집트 시장이 있는 지역은 현재 차량진입이 가능하나, 차량진입을 막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수천 개의 상가들이 있고 아주 복잡한 그곳을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것은 그들과 협약을 맺어야 가능할 것임. 이러한 협약은 시민, 상인, 관련 부서, 위원회가 모여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함 (오랜 시간이 소요됨)

○ 도시계획 · 설계적 측면

- 450년도 오스만 제국의 건립(성곽)을 기준으로 2개의 지역 (Green Zone, Red Zone)으로 구분
- 전체적으로 30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56개는 대형 프로젝트임
- 약 700만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각 프로젝트의 구분은 ①종교, ②문화, ③무덤(묘지), ④옛 유적지, ⑤수도, ⑥건강, ⑦민간지역 ⑧군사지역과 관련된 프로젝트임

○ 중앙정부- 시정부 간 역할분담

- 문화재 복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으나, 이스탄불시에서 인구대비 예산 표준이 계산되어 있으며, 기업 등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하고 있음

- 이스탄불 시에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스탄불은 39개의 구로 되어 있고 그 중 Green Zone에 해당하는 구는 파티구임. 따라서, 전체 책임과 관장은 이스탄불시가 하되 세부적인 것은 구차원에서 진행

●Green Zone(역사문화자원지역)

- 규모는 대략 상하로 7km, 전체적으로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함. 그러나 그 지역 안에 50만명의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려해야 함
- 이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히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허가시 지역(위의 프로젝트 구분 참조)과 지형(평지와 구릉지 등)을 바탕으로 주로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를 고려함
- 위치에 따라 간판, 창문문양, 색상 등도 협약에 따라 조정하기도 하며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관장하여 조정
- 관리는 특별위원회(이스탄불 시청에서 심의)가 조직되어 수행함. 조례가 있음

●Red Zone(역사문화자원 주변지역)

- 건축물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제한구역임. 시야적으로 성벽을 가리지 않도록 건축물을 규제함. (이스탄불시와 유네스코에서 개입함)

○ 재정적 측면

- 50만명 정도가 거주하는 파티구는 이스탄불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시되었으며, 상가 밀집지역임. 또한 병원과 대학 등 기반시설이 모두 해결될 만큼 문화권이 형성되어 생활의 불편함은 없음
- 이스탄불 전역에서 가장 비싼 구역이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때문에 이스탄불시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또한 주거문화도 일반 거주중심에서 상가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변함에 따라 가족 중심에서 직장 중심으로 바뀌는 요인도 지가를 더 상승시키고 있음
- 지속적인 매입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시가 공원조성 등 특별한 어떤 계획을 진행하려는 프로젝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갔다면, 계획을 시행할 때 사유주와 시가 협의 하는 과정을 겪게 됨
- 예를 들어 성곽주변의 그린벨트 지정을 위해 사유지를 사들인 비용이 총 2,000 만불에 달함

○ 법·제도적 측면

- 이스탄불시는 도시개발플랜과 역사지역보호계획이라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파티구는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공조체계를 가짐

- 건축문화유산의 규제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이스탄불 시는 예산가운데 세금으로 견혀지고 있는 예산의 60%는 도로발전, 수도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신축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이스탄불 특별시에 건축 허가세와 건물 유지세 등 세금을 내야 함
- 술탄아흐메드모스크 인근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역내의 개인주거 목재건물의 경우 시에서 무상으로 복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환수제 등 별도의 규제는 없음. 이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부터 이스탄불시가 부동산세금의 10%를 문화재 복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결정함
- 아울러, 각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거지 등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의 50% 또는 일정기준액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 임대에도 세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 (보통 1개의 프로젝트당 3~5만불 정도 소요됨)
- 그 외 지역의 목재건물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조건에 따라 지원을 달리함

※술탄아흐메트 내 고고학박물관



- 오스만 제국당시부터터키에서 최초로 박물관으로 설립(1881)
- 1940년대부터 오스만 제국당시 유물 관리시작 후 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 역할
- 본관에 전시된 유물발칸반도, 서유럽,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운송해서 보관(수장고에 상당수가 있고 일부가 전시)
- 별관은 이집트 문명, 아랍권, 남부아랍권, 메소포타미아, 근간에 있는 이란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
- 제3전시관은 아시아권, 중국 유물 보관
- 박물관의 유물은 100만점으로 큐레이터 35명, 관리인 97명 등 122명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관광청 산하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 모든 유물은 국가에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여하고 있음
- 사설 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하여 고고학 박물관에서 지도감독 하고 있음

□ 현장답사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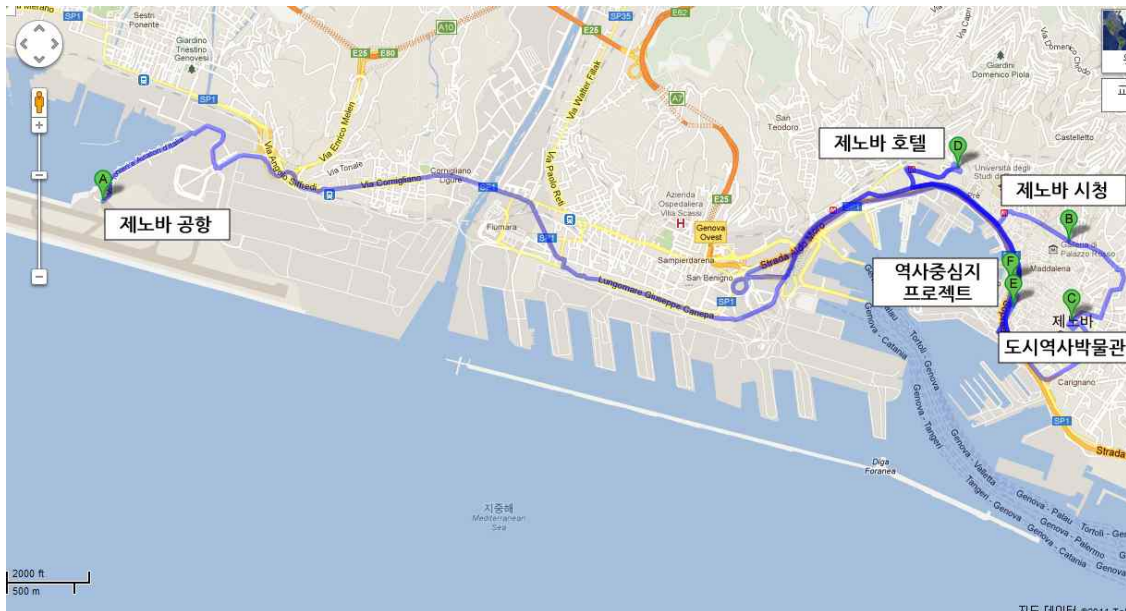


3. 제노바, 이탈리아 (Genova, Italy)

[표] 이탈리아 개요

수도	로마 (Rome, 280만명)
인구	약 6천만명 (2010년 기준)
면적	301,230km ² (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로마(Roma), 피렌체(Firenze), 베네치아(Venezia), 나폴리(Napoli), 밀라노(Milano)
주요민족	라틴족
주요언어	이탈리어, 소수민족어(독일어, 프랑스어 등)
종교	카톨릭(98%)
시차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통화	유로화
기후	1월 평균 약 9℃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는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음 -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치안 상태가 불안한 나라임

(1) 방문도시 개요



[그림] 제노바 주요답사지 위치

[표] 제노바시 개요

인구	620,316명
면적	243 km ²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북부의 중요한 항구 도시들 중 하나 - 조선업이 도시의 중요한 공업이며, 직물, 기계, 철강, 철도 등의 공업 발달

(2) 기관방문

1)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기록보관소)

□ 기관소개

[표]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 개요

설립년도	◦ 2006		
건립/운영주체	◦ 재단		
기능	◦ 15세기 중반 ~ 20세기의 도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 역사를 제노바 시민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물을 수집 · 관리 ◦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자료물을 구축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물을 보관중임		
전시내용	◦ Aspettando il Pallio di San Lorenzo (2011.12.16 ~ 2012.02.19) ◦ Sono solo pixel (2011.11.10 ~ 2012.01.15) ◦ Un dono per Genova: opere di SANTO VARNI (2011.11.11 ~ 2012.01.29) ◦ Il giardino della salute (2011.10.26 ~ 2012.01.08) ◦ Rossomare (2011.10.15 ~ 2012.03.04) ◦ Fiori d'Oriente (2011.04.22 ~ 2012.01.01)		
기타활동	교육 서비스		- 공화국 시대의 개인 생활자료
			- 현재 시대와 미터법 도입 이전의 무역 및 길드 문서들
			- 양피지와 종이의 시대별 표본
			예 술 가 에 대한 기록
	간행물	서적형태로 발간	- 니콜로 파가니니
			- 주세페 비르디
			- Passeggiate in Archivio
			- Guida all'Archivio Storico del Comune di Genova
			- Il passato presente, I musei del Comune di Genova
	기타		- Bollettino dei Musei Civici Genovesi
			- La Grande Genova 1926 ~ 2006
			- 상담서비스 (열람실 이용, 전문가 자문)
			- 가이드 투어 및 교육 활동
			- 인턴쉽 프로그램

○ 역사

- 기록보관소와 박물관 2가지 역할을 함께 하고 있음
- 1906년 제노바에 있는 제노바 시관련 자료들(법적 구속력이 없는)이 보존되기 시작하였음 → 이때까지의 자료는 박물관 소유임
- 1975년부터 국가적인 등급의 제노바 시관련 자료들(법적구속력이 있는)을 보존하기 시작함 → 제노바 시 소유

○ 건립배경

- 제노바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1780년대까지 프랑스령이었으며 (1814년 문서

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프랑스어임) 나폴레옹이 무너지면서 제노바는 독립공화국이 되었고, 1861년 이탈리아 독립공화국이 됨.

— 이로부터 30~40년후 자료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 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설립됨

○ 설립주체

— 제노바 시이고, 규모는 센터장 1명과 문서관리소장 1명, 직원 2명, 관리원 3명, 파트타임 2명임

○ 예산운용

— 예산은 시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운영하며 박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청에 보내고 그 중 일부를 전시회에 관련한 인력에 대한 비용을 받음

— 스폰을 받기도 하고, 유럽연합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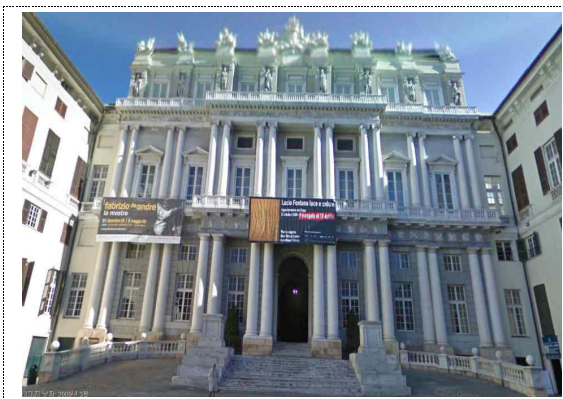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7일(화) 오후 3시

○ 장소: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 회의실

○ 내용: 가칭)건축도시박물관,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모델 및 관련 정책 조사

○ 참석자: Dott.ssa Raffaella Ponte (Director) 외 4인



□ 주요내용

○ 운영프로그램

- 월요일은 견학코스(교육프로그램)를 운영중이고, 그 외 화~금요일은 박물관 및 기록보관소로 운영 중임
- 견학코스는 역사와 미니어처에 관련된 견학 코스가 있으며 종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극장식 수업(학예회)도 진행함. 초,중,고등학교 모두 코스가 있고, 대학생은 의무적으로 관련학과가 인턴을 하도록 되어있음
- 주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컨퍼런스 참석자, 일반 방문객들이며 작년에는 총 8,500여명이 방문함.견학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건축도시 관련자뿐만 아니라 경제학, 서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근대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이 방문함

○ 아카이빙자료 수집-관리-활용 측면

- 현재 아카이빙되고 있는 자료의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3만 8천 유닛이 있음
- 형태는 종이로만 된 자료뿐만 아니라 도면과 미니어처⁴⁾ 등도 있음
- 공적인 자료 이외에도 귀족, 일반시민 등도 자료를 기증하고 있어 기증자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취득한 경우도 있음. 제노바시에는 총 16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대다수 개인 기부에 의해 만들어짐
- 1870~1942년동안 그려진 5,800여장의 건축도시관련 도면과 허가서 등을 보유함 (이는 건물 개보수시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었음)
- 유물적인 가치있는 자료들 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하며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생, 교수 구분없이 똑같이 취급함
- 모든 행정자료는 법적으로 5년 이상 의무 보관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 보관기관이 경과한 문서에 대하여는 기록보존소와 협의하여 선별하여 보관하고 있

4) 여기서 말하는 미니어처는 모형(Model)이 아닌 3차원적인 도면을 의미함

5) 보관 선정의 기준은 2가지로 ①자체적 기준(활용도 등), ②법규 임

으며, 주로 40년 이상 경과된 문서는 보존가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음

– 10년 단위로 자료를 선별하고 40년이 지나면 선별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관

○ 아카이빙시설 관련

– 기록보관현황이 기준층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모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를 요구하면 전문가 과정을 거친 사람이 자료를 찾아서 줌

– 기록보관소는 냉난방을 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디지털화⁶⁾할 필요가 없는 자료, 자주 찾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모아 관리하고 있음 (제일 꼭대기 층)

○ 기타

– 박물관의 성공은 도시의 발전을 시민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현재를 잘 보존하여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 행정관련 서류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쉽게 모을 수 있으나, 편지와 같은 개인 기록물들은 기부에 의해 모아야 함

– 역사적인 기록물을 바탕으로 테마 (길, 마차 등)를 잡아 전시회를 기획 중임



6) 1992년~ 92년까지 도시공학과 전공자들이 졸업논문을 쓰기 위하여 15C~ 18C의 문서를 디지털화 작업을 도와줌. (디지털화의 기준: ①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②잘 부스러지는가, ③사람들이 많이 찾는가)

□ 현장답사 주요사진



2) 제노바 시청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리옹시청 회의실
- 내용: 지역건축자산(문화유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련 정책조사
- 참석자: Bruno Delas (Mission site historique de lyon, Directeur),
Guillaume Arnould (International partnership, Project manager),
Patrice Berger (architecture) 외 2인

□ 제노바 소개

- 예전 항구는 규모가 작았고 별도의 상업시설 없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등 낙후된 지역이었음
- 제노바에 공장이 들어서고 큰 규모의 배들이 정박하면서부터 항구가 커짐. 현재 항구 동쪽에는 조선소, 가운데는 뽀르코 안티코가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음
- 항구가 커지고 시가지가 커지면서 바다 매립을 하게 됨. 그 과정에서 여러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음. 일부는 고대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음
- 제노바는 바다가 가까이 있고, 항구터미널이 있어 많은 크루즈가 오ム. 연간 3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여름에는 한 달 동안 콘서트가 열림
- 제노바는 니스, 밀라노, 에밀리아 토스카나주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뽀르토 안띠코 사업은 도시재생의 목적과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2가지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음
- 뽀르토 안띠코 내에는 관광상품이나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체육관, 아이스링크, 야외수영장, 요트시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바다와 연결된 많은 사무실이 들어와 있음. 1000여명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7시에 모든 상점이 문을 닫게 되어 있음
- 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정박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
- 3개의 테마공원, 크루즈 정박항구, 레저공간, 거주지역, 오피스 등이 조성, 2016년 완성



(3) 현장답사

1) 제노바 역사중심지 보존 프로젝트

□ 사례소개

[표] 제노바 역사중심지구 개요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년대 초반 제노바 산업위기로 종사자와 생산지구 축소 ◦ 조선업 지역 중 하나인 포네타 지역은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놓임 ◦ 도시 재도약을 위한 연구 통해 도시 가치 재발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시의 역사성과 시설의 재활용을 목표로 함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엑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조 피아노의 지휘 아래 구항구 지역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사업 진행. 도시재개발 프로그램(PRU)을 통해 사후관리 ◦ 2001년 G8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역사성 부각하고, 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는 초점에서 도시재개발 진행 ◦ 2004 유럽문화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 역사중심지와 구항 주변지역을 재정비. 도시의 바다 앞편의 리파 마리스 복원과 건축물 보수 	
주요 추진 기구	구항공사	– 제노바 구항 지역을 위한 개발회사
	Civis 시스템	– 역사도심에 관한 정보 유포 및 복구에 대한 점검
	도시센터	– 도시계획 문화의 가치 증진
	도시재생 문화협회	– 유럽 내에서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회의, 토론회, 전시회
주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중심지 보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르티체 G8과 함께 가속화된 역사중심지 개발 – 역사 중심지의 건축물 정면 보수 및 복원 – 항구와 도시사이의 연결을 위한 가로 재개발 ◦ 외곽지역의 도시재생사업 ◦ 항구지역 복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파 마리스 (구항 경계의 건축물 보수) – 다르세나 (수변공간 활용한 복합 단지 조성) 	

□ 주제 1: 구시가지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히스토리컬센터)

○ 개요

- 바닷가이기에 선원, 어부, 귀족들의 궁전이 위치한 곳으로 이차세계대전 후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아 제노바로 이주하였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판자촌이 증가, 빈민가로 바뀜
- 히스토리컬 센터는 역사가 깊은 구 시가지며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생성됨
- 60-70년대에 건축경기의 호황에 의해 역사문화지구를 떠나 주변산지로 이동함 (쁘르꼬 안띠고라고 불렀는데, 그로 인해 히스토리컬 센터는 점점 빈곤해짐)
- 90년대 초부터 300년 이상인 오래된 건물의 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문

화적 인식이 바뀜

- 히스토리컬 센터는 건물이 폭격을 맞아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위생 등 환경이 좋지 못했으며 90년대 초부터 재생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인식이 바뀌어 빠르게 안띠고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함
- 히스토리컬 센터는 궁전이나 유명한 건축물들 위주가 아닌, 사람들이 섞여 사는 활발한 도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재정지원 방식

- 개인 주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복원사업을 진행함. 한 가지는 시가 직접 건물을 구입하여 복원하는 경우 복원 후에 다시 임대를 해주는 방식임. 두 번째는 문화 재적 가치가 있는 집을 시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임
- 붕괴된 집(폭격, 허물어 진 집)들은 시에서 매입 가능한 시에서 매입하여 위생적으로 복원을 하여 다시 임대하거나 빌려주는 형식으로서 시가 소유를 하고 임대하는 방식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집의 수리는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재산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줌, 일반적으로 전체비용의 30%를 지원해주고 지원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팔면 안 되고 세를 주는 것은 가능함
- 세금감면은 전체비용 6-7% 중에서 2.5 혹은 3.5% 정도의 반 정도 혜택
- 1992년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기념 50주년 행사를 하게 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음
- 2002년도에는 G8을 했고, 2004년에는 유럽 최대의 구시가지로 선정되어 기금을 계속 받아 히스토리컬 센터의 복원 사업이 진행된 것임

○ 복원내용

- 복원자격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발달: 가장 투기가 왕성했던 시기에는 시가지의 입구 및 공공공간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이 실시되었고 1988년 초에 복원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1995년 대상지의 복원작업이 완료됨

- 1998년에 주택복원 프로그램의 실험적 차원에서의 복원이 시작되었음. 대부분 2007년에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주택지뿐만 아니라 상업건물 역시 복원 대상으로 할당되었음
- 이후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 및 도시의 재정 등 예산의 공동출원방식으로 기타 다른 용도의 지구들이 복원되면서 복원대상지가 넓어짐
- 신규 복원대상지 선정기준은,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성되는 ghetto지역 및 범죄지대에 적용되기 시작함
- 공공영역의 복원 (Santa Fede Complex 및 광장 등) public space를 리모델링 함으로써 주변 대학교 또는 지역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음
- 향만(Pozzo-Roso)재생 시 근접한 향만지대를 대상으로 재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공유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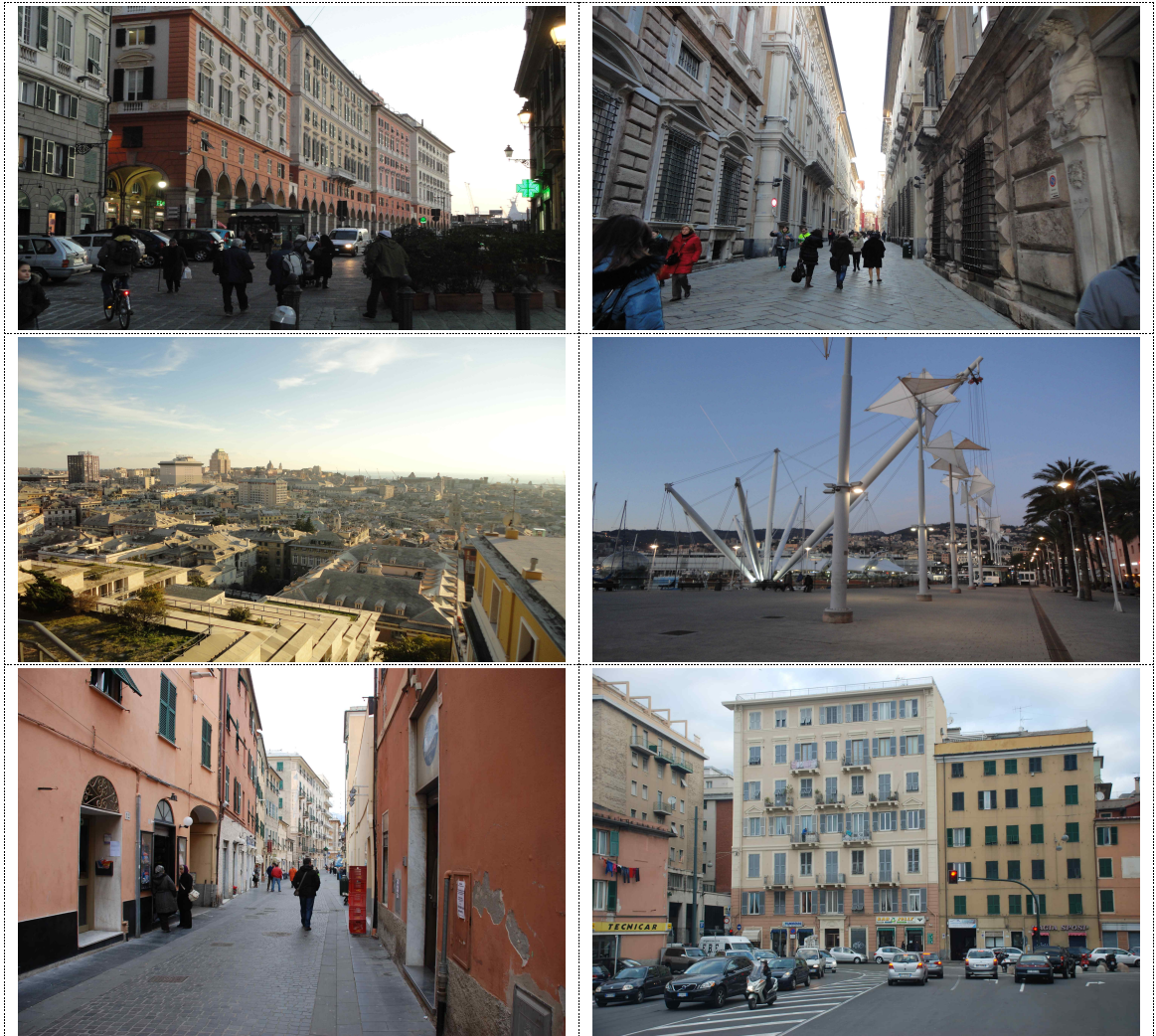
[그림] 복원완료된 주거지(좌), 부실건물의 복원(우: 상/하)



□ 시사점

-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과거 특정시대의 건축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기능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함

□ 현장사진



□ 주제 2: 공장지역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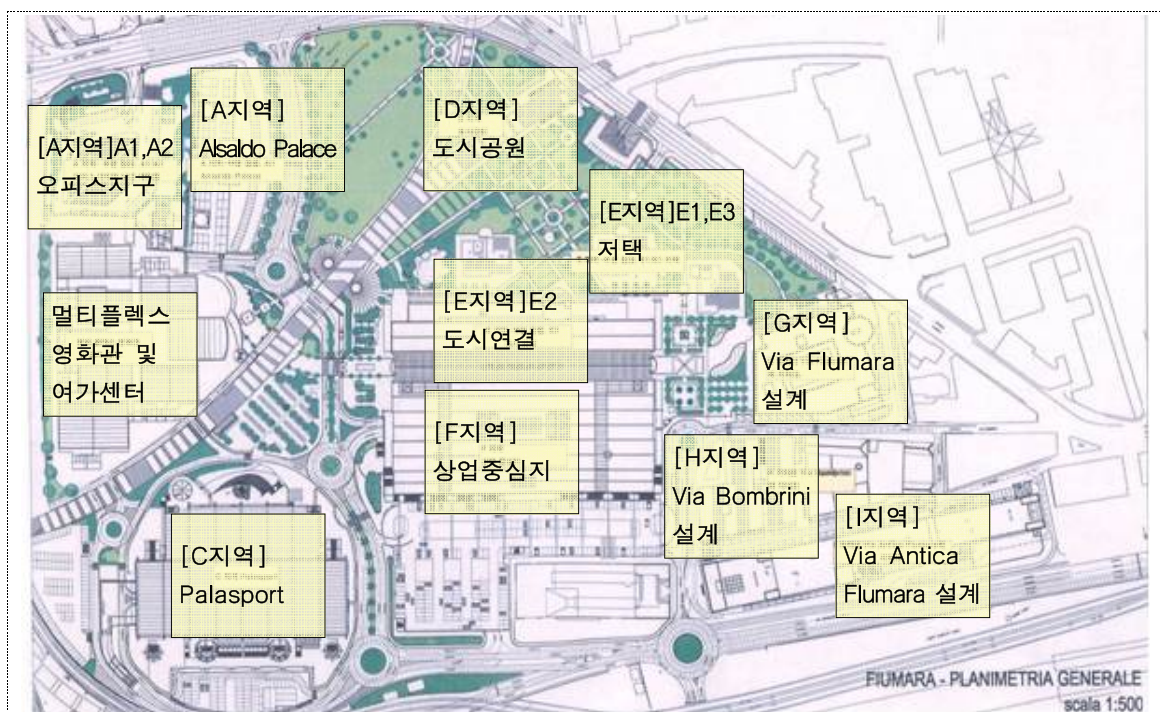
○ 개요

- 면적 : 16만8천㎡
- 이전건물 : 1500년대 건물, 철강공장, 기차, 철도 등을 건설하는 곳

○ 주요공간

- 극장, 중심상업지역
- 쇼핑몰 : 3만 제곱미터 크기의 쇼핑몰, 1200대 주차공간(2만㎡) , 14개의 극장(8천㎡)
- 체육관 : 밑에는 수영장, 사우나가 있고 위에는 헬스장, 8천명 수용
- 녹지지역
- 공원 : 면적은 1만7천㎡
- 사무실지역
- 건설회사(안살도), 보건소, 사무실 등으로 쓰 임, 8만5천㎡의 사무실, 3천3백 개의 주차장이 시민에게 무료로 공급
- 3개 아파트

[그림] 공장지역 재생부지 마스터플랜



○ 재정지원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 안살라 회사 주도로 이루어짐, 종합건설회사, 여기에 소속된 건축가가 디자인하고 소속된 엔지니어가 이를 실현화함
- 두개의 섹션이 있는데 하나는 허가를 받고, 어떻게 지을지 계획하고 다른 이 회사에서 실현(시행사가 전체적으로 매니저해서 땅을 팔고 필요한 관리를 하였음)
- 처음 계획은 영국건축가가 해서 시의 동의를 받음

○ 공공의 재정지원 정책

- 제노바시가 관심을 가져 시에서 예산을 지원, 제노바 시 센터 안에서는 넓은 지역이 많지 않음
- 오랜 세월 동안 철강산업이 이미 없어지고 빈 공간이었던 곳을 이용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정, 지원이유는 여기는 공공적인 콘서트 등을 위해서임
- 공원은 시에서 소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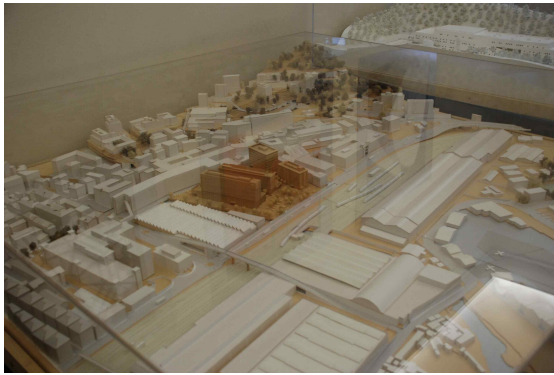
○ 시사점

- 도시재생은 전면 철거만이 해답이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가치에 따라 또는 도시민의 기억에 남는 정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돋보임
- 기존의 공공도로와 건물간의 통합설계를 통한 보행자 통로의 조성은 의미있는 시도임



[그림] 공장부지 재생이전/후 비교

□ 현장답사 주요사진



□ 주제 3: 항만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



○ 재정지원 방식

- 이탈리아 정부에서 항구시설을 제노바 시에 대여했으며 전람회 행사를 위한 복원이나 재건을 정부에서 투자(285밀리온 유로)
- 제노바시가 뿌르도 안티고 단체에 일임하여 40밀리언유로를 재투자함
- 투자는 제노바 건축업체에서 담당하였으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600~7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됨
- 구항구 공사는 제노바 시로부터 60년 동안 항구를 맡도록 위임 받음. 유치원 등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세를 조금 받음. 나머지 상업적인 부분은 세가 같으며,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세를 줄 뿐 관리에 관여하지 않음
- G8, 엑스포 등을 치르게 되면서 많은 자금이 확보 되었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 시작함. 구시가지의 미로와 같은 골목이 정비되는 등 지금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건전한 문화가 조성
- 마케팅은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발전해야 할 부분임. 수족관, 극장 등의 개인광고에서부터, 뿌르고 안티고 의 종합달력, 웹사이트 운영, 패키지 이벤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업지역이 들어서고 수익금을 다시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
- 유치원 등은 시에서 운영.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 완화
-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관광상품 그리고 레스토랑, 요트주차, 남극박물관, 수족관, 극장 등의 시설을 유치

○ 공공(시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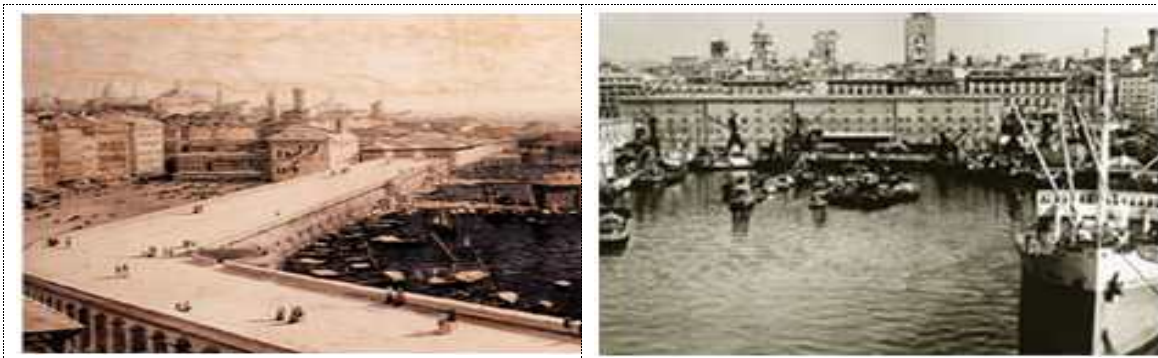
- 단체의 구성원은 제노바시와 항구 그리고 민간연합에 의해 구성되었음
- 항구가 단지 상업이나 관광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유도
- 항구는 이탈리아 정부가 제노바 시에 넘긴 것임. 콜럼버스 기념행사를 위한 복원, 재건을 정부에서 모두 투자함
- 제노바시는 빠르도 안티고 단체에 관련 일을 모두 일임함. 단체의 구성원은 시와 항구와 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탈리아는 상점에 대한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음. 현재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가 영업시간 규정을 풀어 준 상태임(관광객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구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해 함. 또한 상인들은 정해진 영업시간으로 인해 불만이 많음)

○ 주요내용

- Molo Vecchio (옛 부두)공간은 “Baluardo”, “시베리아 항구”, 와 “Mangazzini del Cotone” (코튼창고)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16세기 Galeazzo Alessi에 의해 고안되어 “시베리아 항구” 직접 연결 및 중세시대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음
- 1869년 그 당시 상업적 교류의 증가수요를 증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Raffaele De Ferrari, Galliera 공작의 기부로 지어진 Magazzini del Cotone는, 오늘날 문화와 경제활동의 중심가가 되었음
- 현재는 제노바의 저명한 예술가와 무대 디자이너인 Emanuele Luzzati가 설계한 박물관이 있음
- Renzo Piano가 참여하여 컨퍼런스 및 주제별 전시를 위한 다용도 문화공간으로 공간을 재생하였고 G8에 대한 국제 언론 센터를 2001년 개최하기도 함
- 구항구 복원의 최종적인 목표는 항구가 단지 관광·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생활의 일부라고 느끼게 하는 것임
- 개인회사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며, 수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항구 발전을 도모
- 항구 근처에는 연간 6~7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국 의 약기구 회사도 있음
- 10개의 극장과 옛날 건물을 이용해 3개의 상영관을 만들고, 수족관을 건설함. 그로 인해 최근 2년간 이탈리아에서 방문객이 가장 늘어난 도시가 되었으나 로

마나 베네치아와 같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항구 복원 지역은 길을 내면서 발생하는 흙을 통해 바다를 매움으로써 점점 넓어짐
- 구항구 재생 초기에는 구시가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음. 구시가지는 버려진 상태로 되어 있어, 마약, 이민자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었음. 뿌르도 안티코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철문을 통해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음
- 한 가지 문제점은 교통. 길쭉한 제노바의 지형으로 인해 철도를 다시 놓거나 공항을 넓히려면 자연훼손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음



[그림] 옛 부두 지역 사진(출처: <http://www.portoantico.it/>)



[그림] 현재 항만개발재생 모습(출처: <http://www.portoantico.it/>)

○ 시사점

-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며 시의 국제적 행사 유치 전략이 제노바의 인지도와 재정에 도움을 주었음
- 도입프로그램의 설정은 단순한 지역커뮤니티의 시설 외에 지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설정한 위한 획기적인 기능도입도 요구됨
- 제노바 출신의 건축가 렌조피아노가 도시 재생에 참여를 하여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복원하는데 목적을 둠
- 건강도시로서의 역사는 15년 밖에 되지 않아 부수적인 관광사업이 더 개발되어야 함

□ 현장답사 주요사진



4. 리옹, 프랑스 (Lyon, France)

[표] 프랑스 개요

수도	파리 (Paris)
인구	약 6천만명 (2010년 기준)
면적	551,602km ² (한반도의 2.5배)
주요도시	리옹(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주요언어	프랑스어
종교	카톨릭(82%)
통화	유로화
기후	1월 평균 약 3℃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과거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침략국이었으며, 가장 많은 상업위성을 띄우고, 유럽의 농업대국 - 물값은 별도, 도난주의,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대다수 유료화장실임(보통 1~2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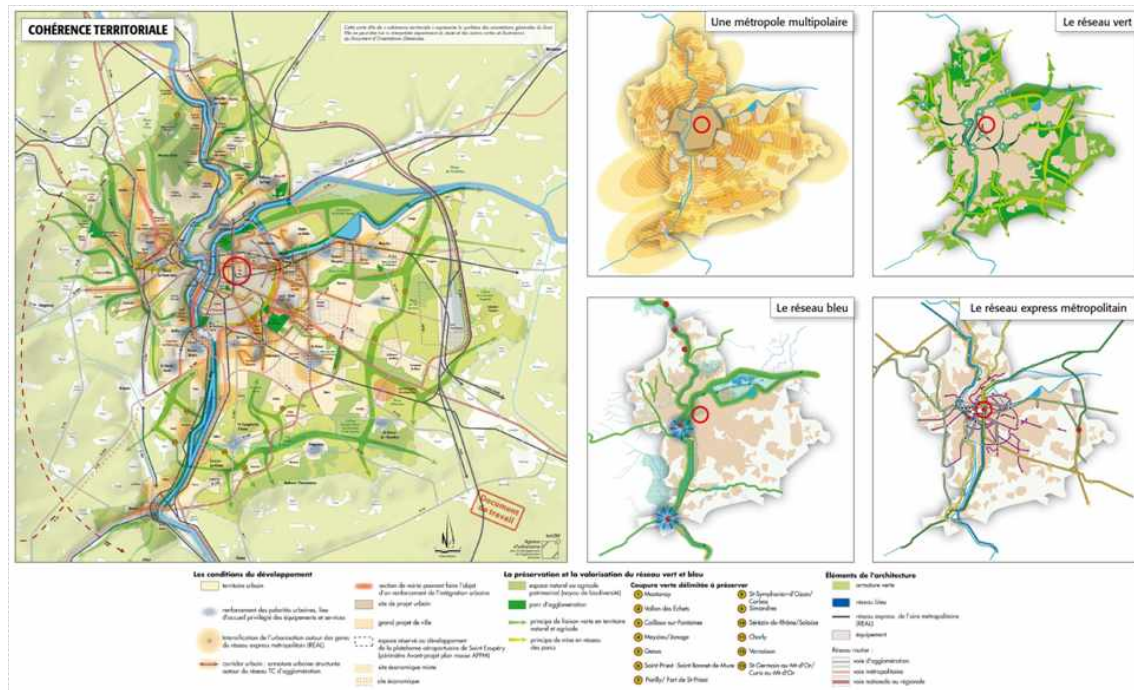
(1) 방문도시 개요



[그림] 리옹시 방문지 위치

<표> 리옹 시 개요

인구	46만 7400명 (2005년 7월 1일)
면적	47.87km ² (4,787ha)
특성	<p>프랑스의 도시로 론 주와 론알프 지방의 중심도시이며, 과거 앙시앵 레짐의 프로방스 리오네의 중심지였다.</p> <p>리옹 시의 인구는 472,500 명(2008년)으로 프랑스에서 3번째 크기이고, 근교와 위성도시를 합한 대도시권의 인구는 약 180만명 (2006년 조사)으로 파리 대도시권 다음으로 2번째로 크다.</p>



- 리옹의 대도시권은 58개의 꼬뮈네(지자체)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정부에서 20년 단위의 국토연계 일관성계획을 수립하면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로컬플랜을 수립함
- 130만명의 거주민이 있고, 리옹시 자체는 47만명이 있음. 리옹 대도시권을 살펴보면 300만명이 있으며, 일자리는 130만개임. 17만 2천여개의 기관이 있음
- 2030년 리옹시 도시구조를 보면 다핵화, 철도와 중심지에 대한 교통계획, 블루네트워크와 그린네트워크를 만드는 녹지계획 등 3개 주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리옹에서 하는 도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용도복합이며 한 건물 안에 주택, 사무실, 미술박물관, 극장 등이 있기도 함
- 까르 지구와 지역은 부유한 지역으로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공업문화유산이 많음
- 2000년대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어 2007년에 주요 방향이 결정되었음
- 자연경관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리옹시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지하철, 급

행열차, 공항 등의 교통망을 구축하려 하고있음

- 까레브스와 중심지역 또한 여러 다른 기업들에서 작은 사업들이 진행 중임
- 구도심지역은 두 강 사이에 끼여있는 프레스킬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인데, 19세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
- 20여년 전에 프레스킬을 교차하는 교통량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 적합한 환경을 잃어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계획을 세웠고, 교통량을 줄임
- 대중교통을 강화하고 메트로를 건설하였으며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미학적으로 가치가 있도록 주차장을 만듦
- 공공공간 조성에 있어서도 국가차원의 현상설계를 실시했으며, 대규모 사업에 국한 되지 않고,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리옹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배경
 - 첫 번째, 리옹의 지리학적 특징임. 두 개의 강의 합류지점이 있고 언덕사이로 강이 흐름
 - 두 번째, 도시의 발달임. 리옹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도시발생 초기, 18세기 초기까지 같은 부지에서 발달함. 세계문화유산의 핵심구역과 그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19세기부터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왼쪽으로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역사 중심지는 여전히 현대에도 도시의 중심으로 모든 정치, 문화, 상업이 활성화 되어 있음
 - 모형적으로 보존된 역사지구가 아닌 살아있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을 접근하였으며 199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주변지역 설정을 위하여 한 스페인 연구가에 의해 리옹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다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역사적인 사실(고문서)에 근거한 과거 도시성벽과 일치하는 구역을 주변지역으로 설정함

(2) 기관방문

1) 리옹 시청

□ 기관소개

- 1 Place de la Comédie, 69001 Lyon
- 도시계획국은 1901년에 설립되어, 30여개의 파트너를 두고 있는 그룹임. 리옹시 도시계획국에는 약 80명이 있으며, 도시계획가, 사회학자, 건축가, 조경학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며,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해하고 지식을 쌓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주요 도시계획들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하는데 계획 수립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사업에도 관여, 사업진행의 모든 단계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내세움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리옹시청 회의실
- 내용: 지역건축자산(문화유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련 정책조사
- 참석자: Bruno Delas (Mission site historique de lyon, Directeur), Guillaume Arnould (International partnership, Project manager), Patrice Berger (architecture) 외 2인

[그림] 리옹 도시재생 계획 (출처: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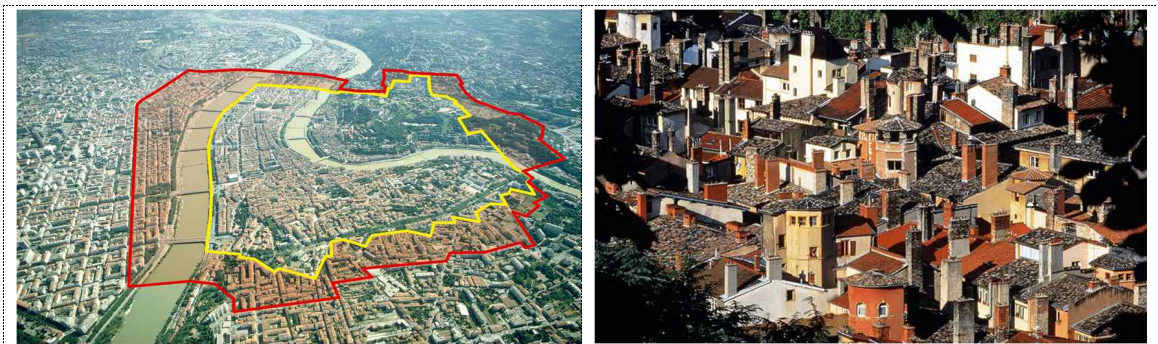
(3) 사례답사

1) 리용시 구시가지(유네스코 문화유산지정)

□ 사례소개

- 도시 중심지는 박물관화된 구도심이 아니라 정치·문화·상업이 어우러진 곳임
 - 도시재생사업의 주안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외부로 쫓겨나지 않는 것임
 - 일부 건물은 용도 변경이 되기도 함
 - － 버려진 공간을 패션유행을 선도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변화된 경우임. 각 층별로 용도를 섞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함
 - － 공공공간에 대한 활용임. 버려진 공공공간에 테라스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함
 - － 공장, 창고로 쓰던 건물이 영화 학교 및 교육기관으로 바뀐 사례임. 르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어 상영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임
 - 도시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근대화 방식을 거부하지 않는 것임
 - － 장루벨에 의해 현대화 리모델링된 오페라극장과, 다니엘 부하엘의 예술적 성격이 부여된 주차장이 대표적 사례임
 - 또 다른 도시정책은 관광정책임
 - － 리용시는 실크산업이 대표적 산업이며, 과거 실크로드에 위치하고 있었기도 함
 - － 리용시는 5개의 유명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르 꼬르뷔제의 작품도 2개 있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구끼리 세계적으로 연대가 구축되어 있으며, 함께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 ※ 한 예로 아프리카 베냉의 역사문화지역이 있음. 실제적인 작업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원함. 연대 안에는 한국에도 2개의 도시(경주, 양동)가 있음
- 문화유산 주변지역 설정은 시민들이 협회를 만들어, 리용 문화유산 등록을 시에 요구하여 유네스코 전문가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리용 일부(25헥타르)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됨
 - 리용시 전체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프랑스인에게만이 아닌 전세계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했기 때문임
 - 교육프로그램은 도시계획, 문화, 교육 등을 서로 총괄하여 리용시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 예로 거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박물관, 아카이브, 학교 등이 함께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시청에서 조정함

- 리옹시의 도시재생은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버려진 공공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이는 정신적인 유산(과거에 기억들이 남아 있는 유산)에 대한 접근 방법임
- 과거 공장 및 창고로 쓰이던 건물은 사실 영화를 제일 처음 발명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던 건물임. 건축적으로는 평범하고 가치가 없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역사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고, 이 건물은 복원되어 영화교육 기관으로 쓰고 있음
- 리옹시 대표산업은 실크산업으로 예전 실크로드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를 느낄수 있도록 도시의 대표적인 요소들을 현대건축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부지에 5개의 현대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르 꼬르뷔지에의 2개의 건물들 및 문화유산 지정지구끼리 녹지축이 연결되어지도록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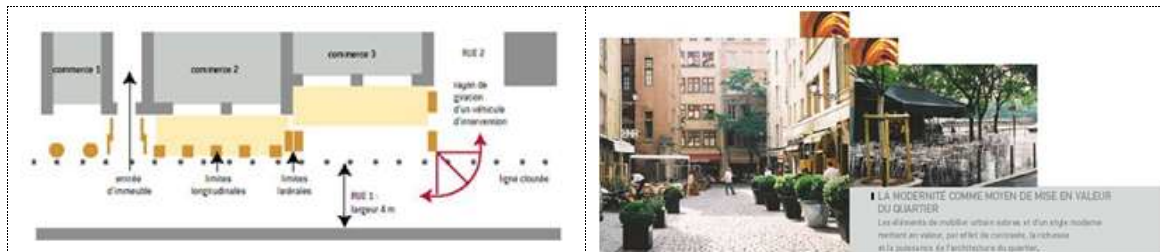


[그림] (좌) 유네스코 보호구역(노란색), 완충지역(빨간색), (우) 주거지 경관

□ 주제 1 : 건축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

- 특징
 - 사회적 혼합이 되도록 노력하고 특별한 과거건축은 당시의 기술을 발굴하여 복원함
 - 영화가 상영된 기억이 존재하는 창고를 영화학교, 교육기관으로 사용
 - 관광객, 상인, 거주자간의 상충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이 계속 살고 있는 문화유적지 유도

-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모이는 공간이 되도록 조치, 예 공공공간의 상업 공간 앞에 테라스 설치
- 자동차 중심에서 시민을 위한 강변에 대한 재활용
- 시내 중심부의 자동차의 사용공간을 감소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강화
-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통한 소유의식 강화, 도시산책프로그램을 통한 도시역사 교육
- 도시의 문화유산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에게 설명
- 전통적인 실크로드 산업의 강화
-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구끼리 세계적으로 연대 강화



<그림> 상업공간의 외부 저층부 테라스 확장

- 건축문화유산 및 주변경관(완충구역) 보호와 도시계획(개발)의 조화를 위한 주요정책 및 현황
 - 리옹시의 도시정책은 과거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유산을 연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벨쿠르 광장은 거주자와 관광객, 상인들간의 충돌이 있어 거주민의 이주가 시작되자 이 지역을 균형있게 활용하기 위해 거주민이 없는 문화유적지구는 살아있는 문화유적지구라고 할 수 없다는 하나의 규칙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12월 8~9일, 이틀간 야간공원축제가 열리는 등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음
 - 미래유산에 대한 접근방식의 예로 건축가와 예술가가 함께 작업한 새로운 주차 시스템을 구축한 주차장은 향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며 이러한 접근이 콕플루앙스 사업에도 반영되어 있음.

- 250여개의 도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등 많은 지역에 노하우 전수 및 지원
- 지정된 지구의 역사보존 사업을 위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보존을 실시함. 특별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물도 포함되며 건축물에서 시작하여 지역 전체로 넓혀가는 시도를 함
- 이는 지구 내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음. 특별한 건축물의 복원은 14세기의 기술을 다시 찾아내야만 했으며 이러한 복원사업은 중앙정부의 문화부에서 지원을 받음
- 문화유산 복원 사업은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한 후에 어느 정도 복원이 완료된 경우 지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며, 정부지원은 사업비의 40%이나,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님
- 세계문화유산의 완충구역은 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장이 수용하여 리옹의 문화유산 등재 가치판단을 위하여 한 스페인 연구가가 리옹의 역사 조사, 사실을 검증하여 고문서(도시성격)에 의해 주변지역을 설정함
- 문화유적지구의 주거기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이 고급 호텔로 변경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집시들이 살았던 건물들에는 관리인들이 살고 있음
- 용도복합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장려하여 저층부는 스타일리스트들의 공간으로 상층부는 거주기능을 넣는 등 각 층별로 용도를 섞이도록 허용함



[그림] 건축문화유산을 확용한 도시재생 사례

□ 주제 2 :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 수변공간 활용관련

- 1960년대부터 수변은 도로, 주차장 등 자동차에 의해 잠식됨
- 민간과 협력하여 자동차가 사용하는 공간을 줄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킴

- 강변지역은 60년대부터 자동차에 의해 잠식되어 자동차에게만 활용되던 공간이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민간이 합작하여 교통수단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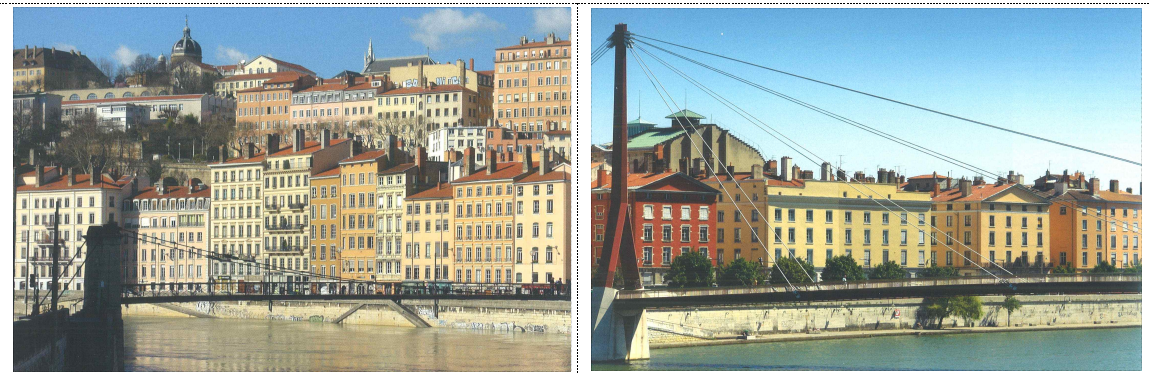
□ 시사점

○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도시활성화

- 문화유산을 시민들 자신들의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거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산책’ 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는 도시의 발전과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음
- 거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산책은 협회와 박물관, 학교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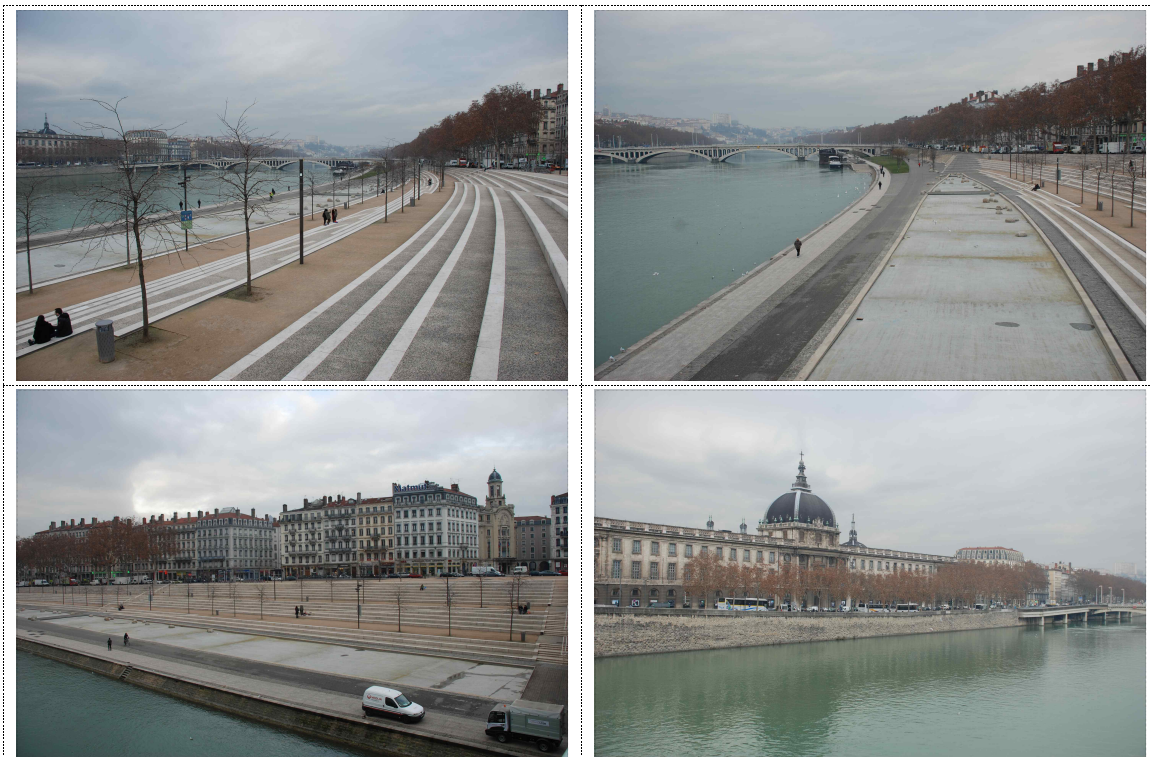
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조합 및 조정해줌

- 또한 매년 9월 두 번째 일요일은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하고 있으며, 평균 20만 명이 방문함
- 시민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은 별도로 없으며 도시계획, 문화, 교육 등 여러 부분이 연계하여 이루어짐



[그림] 수변공간 계획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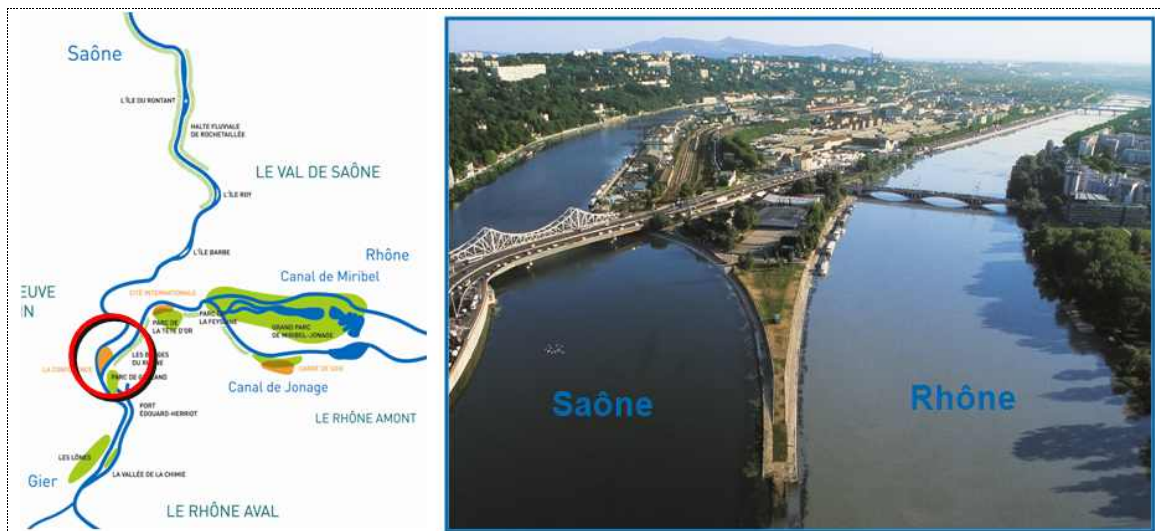


2) Confluence

□ 사례소개

[표] confluence 개요

배경	◦ Agenda 21을 실행하기 위해 2001년에 시작되고, 2003년 승인됨	
특성	◦ 도시 불균형의 재정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계획 ◦ 역사적 도시 공공 장소와 외곽의 넓은 구역에 대한 재활성/재개발 ◦ 도시 풍경, 공원 시스템과 공공 녹지대의 가치 강화 ◦ 도시와 도시권내 이동공간의 정의와 재계획	
계획내용	◦ 1단계 : Agglomeration의 전망과 전략의 정의에 집중 ◦ 2단계 : 정의된 도시 계획 도구를 통해 공공 정책을 구분 ◦ 3단계 : 관리와 발전 계획의 결정, 재개발에 관한 계획들을 융화 ◦ 4단계 : 지역공공서비스에 관한 평가와 참여현장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도시 공공 서비스 창설	
주요 추진 기구	연합참여회사	－ 토지의 구입, 민간 공공 투자자에게 필지의 판매와 실질적인 건설까지 계획을 총괄 관리
	Sepal	－ 관리, 협력, 주체들의 동원 공공과의 대화 창구의 관리 등의 과정을 조정
	Millenarie 3	－ 시민과의 교류, 시청 내 개발 위원회 활동을 협의
주요 프로젝트	◦ 프레스킬 계획 － 도로의 정비, 보행자 전용 역사 광장, 지하 주차장 건설 － 역사중심지의 보존과 경제적 활성화 － 지하주차장 건설, 예술품을 통한 환경의 질적 향상 ◦ 수변 계획 － 선착장과 강변로의 접근 공간에 대한 재디자인과 복구 ◦ 리옹 콩플루앵스 계획 － 사오네크르드 구역의 도시계획 － 도시 레저를 위한 혁신적 공간 제공, 유흥지 산업 공간으로 전환	



- 콘플루앵스지구는 약 150헥타르를 차지하며 과거 가스공장과 감옥이 위치해 있었음
- 기차역이 들어오면서 두 개의 지역을 나누는 장애물이 되었었고 물류(설탕 등)의 저장 창고가 위치. 20세기 초부터는 서민이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
- 20세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단절 더욱 심화

□ 주제: 구산업단지 부지의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 실용주의 · 합리주의적이었던 19세기의 도시연구에 비해 인문적인 주거지, 직장, 여가가 이루어진 복합적이고 밀집한 동네를 연출하는 것이 목표
- 이지역의 주요발전 방향은 주거, 문화 모든 것들의 혼합이며 24시간 내내 활성화되는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
- 녹색네트워크가 지역내로 침투, 기존에 없던 호수 등의 자연요소 추가, 조성 계획의 주요 축은 대중교통축이며 다리를 건너 광장까지 연결 예정
- 고속도로는 장기적으로 도시외곽으로 이동, 기차역 앞 공공공간 조성, 15%는 임대주택, 25%의 사회주택, 60%의 분양주택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 과거의 설탕공장은 현대미술박물관, 레스토랑, 클럽등의 편의 시설로 변경, 공연장, 스포츠시설, 학교 등으로 기능 변경
- 그 지역의 기억을 유지시키고 정체성을 주는 건물을 보존
- 건물배치는 블록별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3층에서 15층까지 다양한 층수 고려
- 감옥은 30%를 복원하여 5천명을 수용하는 대학으로 활용
- 자연박물관 조성, 강변의 인터체인지를 거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

□ 시사점

- 새로운 도심창조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는 주거, 업무, 상업 등의 기능 혼합이며 이러한 접근시도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조성을 위하여 일부 국내에서도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됨



※ 청색 계획(le Plan Bleu)

○ 소개

- 리옹 중심의 57개 연합체로 구성된 그랜드 리옹지역에서,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수준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1년 청색 계획(le Plan Bleu)이 마련됨
- 리옹의 론 강, 손 강 그리고 합류지점인 콩플뤼앙스(Confluence)를 개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 구성

- 론 강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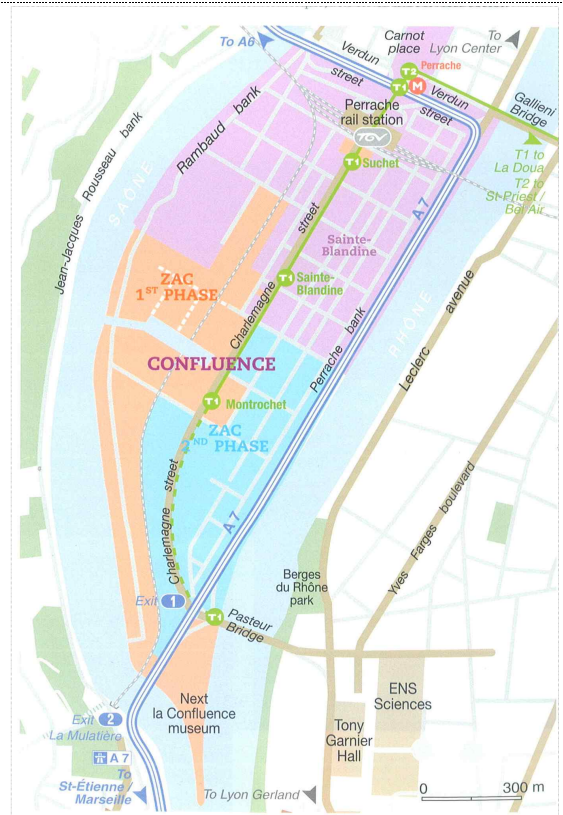
: 간선도로와 고속도로가 있는 우안(우측 강가)은 그대로 유지하고, 좌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을 없애고 자전거 길과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만들었다.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무인자전거 임대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여러 도시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 론 강과 손 강 합류지점 회복

: 교도소와 탄약 공장, 도매시장 창고가 늘어선 지역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사무실로 개발한다. 주택과 사무실 건설 시, 단열이나 환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기준보다 40% 에너지 소비 절감을 달성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필요량의 80%를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이 같은 사업은 유럽연합(EU) 콘체르토(Concerto)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 손 강의 회복

: 낡은 항구에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유치한 사무건물이 들어서고 그 앞으로 강변 휴식공간 조성
: 강변의 상당 부분을 점령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만드는 계획



[그림] confluence 교통접근성 및 토지이용

[물과 도시 공존의 현장을 가다] 1) 佛리옹의 론 강-손 강, 2009-04-01,
<http://news.donga.com/3//20090401/8714554/1>
 세계도시정보, 해외도시개발사례, http://ubin.krihs.re.kr/2009/php/devel/devel_con.php?no=648&thema=7
 Lyon Confluence 홈페이지, <http://www.lyon-confluence.fr>

□ 주요내용

○ Rhone 쪽

- st-paul, st-joseph 감옥소 변환: 리옹의 카톨릭 대학으로 변환: 100개가 넘는 학생 기숙사용도의 주택 건설, 9000m2의 사무소, 시장, 식당, 인도주의, 서식지 재단 사무소, 경제 연구소 등
- Saone park: 14 ha 의 큰 공원 (2008-2012)
- 항해 광장: 4ha (2004-2010)
- 상업 및 여가 공간: (2003-2012): 대형 영화관, 호텔***, 롤러스케이트장, 파킹(1500개), 운동 시설 등
- Rambaud 부두 재 건설: (굉장히 크고 다양한 공사임) 항해 도로, 토지 소유권, 현금 예금 개발 등 (건축가: de Koning, Wilmotte, Herzog & de Meuron 또한 예술가들: B. Lavier 과 협력), 그중 Confluences 아는 박물관 건설 계획중: (2001-2014): 박물관 건축가: coop himmelb(l)au

○ Saone 쪽

- 57개의 주택, 프랑스 은행 본점, 66 주택, 77 주택, 무역 장소들, 66개 주택, 탁아소, 교육시설 건설, 레저 시설
- 도시구조(기능, 용도): infrastructure: 도로, 녹지축, 건물배치
- 도면: 투시도, 배치도 등
- 투자 방식: 공공, 민간(재정), 혜택
- 개발 방식->단계별 개발, 공간구도 예측
- 단계별 개발: 재정 투자 (민간, 공간 등)



[그림] (좌) 리옹 Rhône 강에서 바라본 marché vue 지역 (출처: "les inrockuptibles", 사진 credit: Herzog & de Meuron-MDP)
 (우) 리옹 "confluence" 프로젝트 조감도. 두 번째 단계의 지역개발계획은 "presqu'île" (nearly island)섬의 남-동쪽을 포함한다.
 (출처: "les inrockuptibles", 사진 credit: Herzog & de Meuron/Desvigne Conseil-JP Restoy)

3) Gerland

□ 사례소개

[표] Gerland 개요

프로젝트명	Gerland _ un projet urbain « multi-sites » “게르랑드- 다중 대지 도시 프로젝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이드라인 및 계획프레임워크를 통한 기획작업 진행 - 전철노선의 유치를 통해 프로젝트 부지의 역량이 강화됨
계획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구역 120,000 m² - 개발예정구역 100,000 m²
주요 추진 기구	- 25년 간 제정지원 및 시설지원

- 1980년부터 크게 4가지의 발전단계가 있는데, 바이오테크놀러지와 연계된 2개의 대학설립, 대중교통강화를 위한 지하철개설과 역사설립, 공공시설과 커다란 공원조성, 주거기능, 생명과학회사들의 이주로 진행
- 가르니에가 설계한 스타디움 위치하고 있음
- 작볼레라는 사업은 부지면적은 8만m²정도이고 전용연면적은 대략 12만m²임
- 빨간색은 주거와 산업과 공공시설들을 보완하는 계획이며 대도시에서 세운 그린네트워크를 연계한 세부계획을 조성하였음
- 제르런드 지역은 공업기능이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1913년 토니가르니에에 의해 시장, 서민주택(HLN) 등이 만들어짐
- 2000년대 이후,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2개의 대학을 설립하고, 바이오테크놀러지와 연계된 사업을 진행중임
- 또한 대중교통 강화를 위해 지하철을 놓고, 역을 만들었으며 공공시설과 공원도 조성함
- 공공건물 뿐 만 아니라 오피스와 주거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들도 지어지고 있음
- 현재 작볼레라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는 주거와 산업, 공공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는 계획임. 면적은 12만m², 부지면적은 8헥타르이며 건축연면적은 25만 5천m²임

□ 주제 1: 공업문화유산 및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

- 까르지구와 지역의 도시재생
 - 리옹시가 발전하면서 외곽의 접경지역에 조성된 지역이며 공업문화유산이 많고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존재함

- 리오의 섬유산업과 함께 발전. 2007년에 주요계획이 결정되었고 2025년까지 계획이 발전되고 시행되는 기간임
- 프로젝트 조성을 위하여 주요축을 설정하였고 자연경관에 할애된 중요한 지역 제공
- 교통에 있어서는 리옹시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 급행열차 등이 있고 공항과의 연결성 고려
- 복합용도의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짐. 브리노 드 메디에의 건축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음
- 교통거점과 상업거점(멀티플렉스 영화관, 주차장 등) 그리고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하였음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silk square): 1,410 000 m² - 주거단지: 660 000 m² - 오피스시설 : 690 000 m² - 상가, 레저시설, 서비스 60 000 m²
	계획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2004 프로젝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최적용도 분석 : 과거의 레저·상가중심지였던 대상지를 도시재생을 위한 프로젝트 단지로 재기획 - 2004-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프로젝트의 기초 도면 완성 - 2007-2025: 향후 계획기간 조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uno Dumetier(도시개발단장)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개발단계 진행 :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간 연계·응집 도모 : 프로젝트 시작 시 수립하였던 원칙을 견고히 함 : 도시프로젝트' 라는 출판물 발간



4) 토니가르니에⁷⁾ 도시박물관

□ 기관소개

[표] 토니가르니에 도시박물관 개요

설립년도	◦ 1988
건립/운영주체	◦ 예술가 및 리옹 시민
배경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바르데 제따쥐니를 중심으로 6명의 예술가들에 의해 리옹 출신의 건축가 토니가르니에를 기리기 위해 건립됨 ※ 토니가르니에(1869~1948) : 프랑스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리옹의 에콜 드 보자르에서 수학하고 1899년 로마상을 획득한 후,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며 근대적 조형을 갖춘 산업도시(La Cité industrielle) 모형을 설계, 발표함. 1905년 에두아르 에리오(Edouard Herriot)가 리옹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개발과 확장에 따른 주요 건축사업을 그에게 일임함.
전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옹집합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토니 가르니에가 설계 · 구축 - 저예산으로 HBM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 - 당시 현대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음 ◦ 제를랑 스타디움(1913~1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세계대전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26년 완공 - 1998년 FIFA 월드컵 개최 경기장으로 보수공사 실시 ◦ 에두아르 에리오 병원 (1913 ~ 1933) ◦ 중앙시장(1909~1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전시 및 각종 공연을 위한 공간

[출처] 토니 가르니에 도시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rbaintonygarnier.com/musee@mutg.org>

○ 개요

- 토니 가르니에 도시 박물관은 1980년~1988년 동안 6명의 예술가에 의해, 그의 건축물(리옹집합주택, 제를랑 스타디움, 에두아르 에리오 병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도시 박물관으로 만들어짐
- 토니 가르니에⁸⁾의 건축적 성과를 소중히 여기며, 그를 기념하는 도시 거리박물관임
- 혁신적이고 독특한 박물관 설계 · 계획과 건축의 기본 단계 노출 등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7) 토니 가르니에 : 프랑스의 건축가. 근대 공업도시를 연구하여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다. 근대건축에서 콘크리트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어귀스트 페레와 함께 르 꼬르뷔지에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20세기의 첫째 도시개발자, 건축가인 토니 가르니에는 1869년 리옹에서 태어났다. 비단 만드는 직조원이었던 가족을 가진 가르니에는 14살 때부터 건축학교에 등록하여 공부하였다.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 장학금과 빌라 메디시스의 4년동란 거주하며 고대 기념물을 공부한다. 그리고 프랑스 아카데미의 경향을 받으며 인용 산업 이상적인 도시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1904년 리옹으로 돌아온 그는 그 당시 시장인 Herriot와의 협력으로 많은 건설 작업허가를 받는다. 1938년 퇴직하며 1948년 죽음을 맞이한다.

○ 박물관 구성

－ 리옹집합주택

- 1930년대 토니 가르니에가 설계 · 구축한 리옹 집합 주택이다. 저예산으로 HBM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당시 현대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체험 가능

－ 게를랑 스타디움

- 토니 가르니에에 의해 1913년에 착공했으며, 제 1차 세계대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26년 완공됨
- 1998년 FIFA 월드컵의 개최 경기장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팀인 올림피크 리옹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두아르 에리오 병원 (1913~1933)

－ 중앙시장

- 현재는 대규모 전시 및 각종 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

□ 현장답사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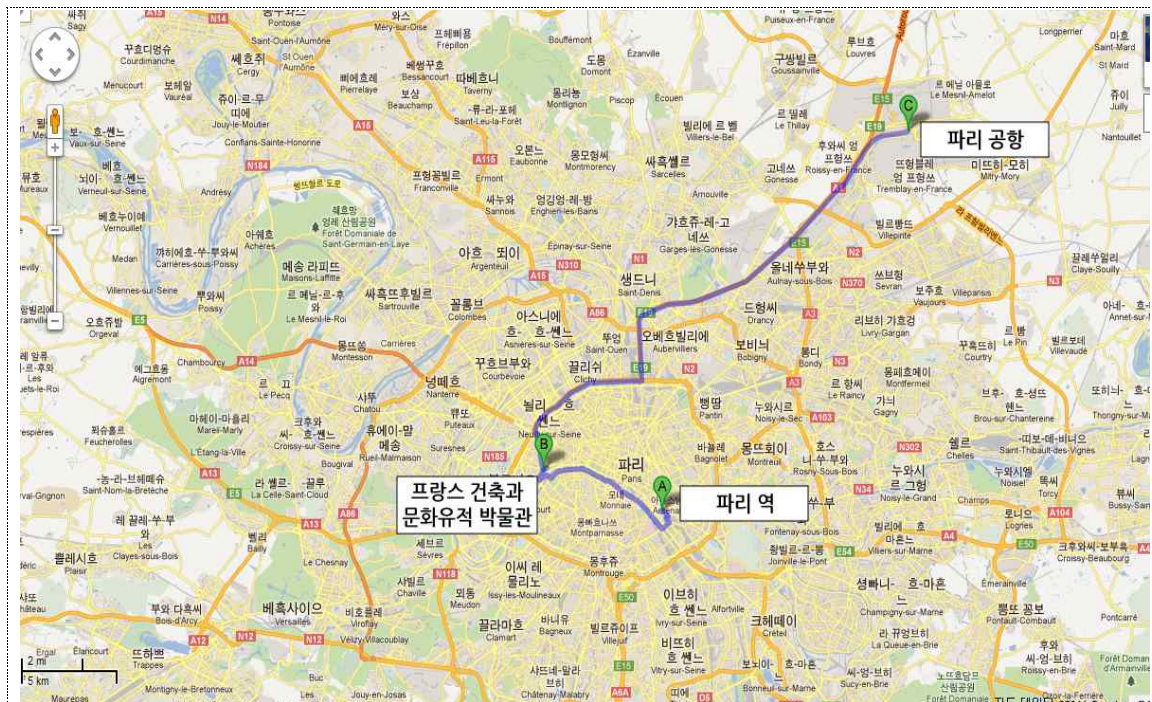


5. 파리, 프랑스 (Paris, France)

(1) 방문도시 소개

〈표〉 파리 시 개요

인구	약 993만 명 (2006)
면적	2,723km ²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정치·경제·교통·학술·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 중심지 - 둘레 36km의 환상도로(옛 성벽 자취)에 둘러싸인 부분이 1860년 이래의 파리 시가지임 - '수도예의 집중현상'은 프랑스의 특징이며, 파리는 세계 제4위의 인구 밀집 지역임



(2) 주요 방문기관

1) 프랑스건축과문화유적 박물관(Cite)

□ 기관소개

[표] 건축과문화유적박물관 개요

설립년도	◦ 1980 (IFA 설립), 2007 (개방)		
건립/운영주체	◦ 프랑스 문화정보부		
구성	◦ The Museum of French Monuments: MMF ◦ The French Institute of Architecture: IFA ◦ The Centre for Advanced Study in Chaillot: CEDHEC		
기능	◦ 현대건축의 창의성을 진흥하고 프랑스 건축유산을 알리고 아끼게 하며 건축을 여러 층의 대중과 함께하게 함. ◦ 전문가 및 역사가,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프랑스건축계에 세계로 향한 창을 제공한다.		
전시내용	◦ 상설전시 - 1층 : 로마 예술품에서 중세, 18c에 이르는 역사적 컬렉션 - 2층 : 18c ~ 현대까지 테마별로 전시 ◦ 기획전시 - Greater Lyon (2011.11.30 ~ 2012.01.29) - The Spirit of the Places's (2011.09.17 ~ 2012.03.19) - Towards New Social Housing (2010.06.17 ~ 2012.06.17)		
기타활동	교육	학교교육	- 다양한 프로그램 - 어린이들을 위해 별도의 아동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전시 기획이 이루어짐
		시민교육	- 건축역사, 주제별 컨퍼런스, 대중강좌, 답사
		전문가교육	- 샤이오스쿨 (샤이오공의 고등교육기관) - 건축가들에게 건축문화유산의 이해를 알리고 건축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함
	아카이브	- 프랑스 현대건축을 테마로 고건축과 현대건축을 수집 - 건축이 소개된 뉴스 등의 각종 영상자료 수집, 전시	
		- 도서관 : 26,000권 - 400여권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 영상자료 : 20c 자료보관서 비용 지원	
	출판	- 정기간행물 : ARCHISCOPIE(IFA), monumetal semestriel -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출간물 : 책, 가이드, DVD, 건축작품집	
기타		- 건축상, 워크샵, 답사기획, 다양한 행사기획 (연극, 동영상상영)	

-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 사요 궁전 동편 건물에 위치
- 중세부터 오늘날까지의 프랑스 건축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음. 대규모의 상설 및 비상설 전시관과 건축관련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음
- 1980년에 설립되었고 1998년 화재로 인하여 잠시 문을 닫은 뒤 2007년 재개관
- 3개의 조직(교육, 박물관, 기록보관소)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50여명의

직원이 근무

- 연간 500,000여명 방문
- 박물관 인근에는 에펠탑, 르부르 박물관 등 주요 문화 및 관광시설이 위치

□ 방문개요

- 일시: 2012년 1월 17일(화) 오후 2시
- 장소: 제노바 도시역사박물관 기록보관소 회의실
- 내용: 가칭)건축도시박물관,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모델 및 관련 정책 조사
- 참석자: David Pecere(기록보관소장), Laurence de Finance(박물관장), Mireille Grubert(전통건축학교 교장)



□ 주요내용

○ 박물관 공간프로그램 관련

- 1층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건축물 중 입면의 주요부분에 대해 1:1 스케일로 재현한 모조품을 전시하고 있음.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하여 과거 색채까지도 재현하고 있으며, 미술, 건축 전공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인 효과가 큼
- 이러한 콘텐츠들은 사람들이 모두 복원한 것임
- 2층은 현대건축 전시실로 프랑스만국박람회가 열린 크리스탈펠리스 이후(1850년 이후)의 주요 건축들을 테마별, 용도별로 전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작품이 확보되었을 때는 3개월 동안 중앙에 전시함
- 도면과 모형뿐만 아니라 르코르뷔제의 집합주거의 한 모듈을 제작하여 직접 공간을 경험할수 있음
- 건축가 한명에 대한 전시는 종종 기획전시로 이루어지며 그 시대의 양식 및 특징을 구분하여 그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명한 건축가를 선정함
- 3층은 기존에 사요 궁전의 중앙부분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으며 박물관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임



○ 교육프로그램 관련

- 시민교육은 건축역사, 주제별 컨퍼런스, 대중강좌, 답사 등으로 구성, 전문가교육은 사이오스쿨(고등 교육기관)에서 건축가에게 건축문화유산의 이해를 알림
- 건축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건축복원을 위한 2년제 전문대학원과정과 파리시 건축도시관련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있음
- 사이오 스쿨은 박물관 내부에 위치함 (연구기관은 별도로 없음)

○ 수장고 관련

- 수장고는 박물관과 별도로 파리 외곽에 있음

○ 기록보관소 관련

- 기록보관소가 구분된 이유는 박물관이 기획 및 상설전시를 위주로 계획되어 2004년 통합당시 계속 있던 자리에 있고 대신 박물관내 도서관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음
- 아카이브와 관련한 기록보관소는 현재 2,000㎡ 규모이며 3/4를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1,000㎡가 부족하여 추가 건립함.
- 기록보관소는 1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
- 기록보관소는 1988년 설립되었고 프랑스 건축가 위주, 비활동 건축가의 기증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1년에 5~6명정도)
- 기록보관소의 1년 예산은 약 70만 유로이며 그 중 시설임대료가 15만 유로임
- 프랑스는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직업을 존중하고, 각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받고자 했으며, 이러한 건축가들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건축가 아카이브가 시작됨.
- 기록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은 인터넷으로 목록화 및 디지털화 되어 있음
- 기록보관소는 1주일에 3번 열고, 하루에 15명 정도의 방문객을 받음. 일반인은 20%, 전문가들이 80%의 비중을 차지함



□ 시사점

- 건축도시부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기관 중에 한군데가 ABF 라는 기관으로 이 기관은 도시나 지역 혹은 건축물들을 문화유적지로 선정과 관리하는 역할을 함. 관리 부분에서는 문화재법을 기준으로 관리 중임
- 문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도 일반 건축가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는 ABF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이때 주변건물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시각적인 훼손이 가지는 않는지 등을 건축 평면, 입면과 투시도, 재료 사용 그리고 건물들의 형태 등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검증하고, ABF 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시청에서 신청을 해서 건축법에 맞게 설계계획서가 작성되면 건축허가가 나옴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시장의 동의만으로 나올 수 있음)
- 이에 건축 문화재를 복원할 경우에, 에콜 샤이오 학교 출신이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에콜 샤이오 출신 건축가가 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장답사 주요사진



III. 기타

1. 취득자료 목록

(1)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 SAADIYAT CULTURAL DISTRICT ABU DHABI 단행본
- "l'agenda your cultural guide with a french twist" 단행본
- "Louvre Abu Dhabi Talking Art Series" 브로셔
- ABU DHABI ART 2011 브로셔
- EMIRATI EXPRESSIONS 브로셔
- The Masdar Times 신문
- Learning to change the world 단행본
- The Global Centre of Future Energy 단행본
- EMIRATI EXPRESSIONS 브로셔

(2) 이스탄불, 터키

- yapi 358 단행본(잡지)
- yapi 360 단행본(잡지)
- yapi 357 단행본(잡지)
- "YEM YAPI-ENDUSTRI MERKEZI THE BUILDING INFORMATION CENTRE" 단행본
- ISTANBUL city map & guide 지도
- YEM Yaum 팸플릿
- "Material Connection From Idea To Solution" 브로셔

- MATTER 팸플릿
- kultur sanat bulteni 단행본
- THE LAST OTTOMAN CAPITAL ISTANBUL 단행본
- Capital of Three Empires ISTANBUL 단행본

(3) 제노바, 이탈리아

- FIUMARA-PLANIMETRIA GENERALE 지도(B4사이즈)
- "2012 un anno AL PORCO ANTICO DI GENOVA" 달력
- HISTORICAL ARCHIVES OF THE CITY OF GENOA 신문형태
- "genova musei Museo del Risorgimento Istituto Mazziniano" 팸플릿
- [*]Festival della Scienza 브로셔
- card musei annuale studenti 팸플릿
- Adagio e curioso 팸플릿
- DER KLANG DES SUDENS 팸플릿
- "PALLAZZO DUCALE Cultura per la cita" 팸플릿
- GENOVA DA NON PERDERE 지도
- "atti del CONVERNO di studi GE900 la Grande Genova 1926-2006" 단행본
- coopsette 단행본
- LA PIAZZA SUL MEDITERRANEO 브로셔
- ARCHIVO STORICO DEL COMUNE 신문형태
- "HACIA SOPHIA THE CHURCH OF THE HOLY WISDOM OF GOD" 단행본

(4) 리옹, 프랑스

- "archiSTORM LYON CONFLUENCE LABORATOIRE DE RENAISSANCE" 팸플릿
- "Lyon Confluence laboratoire de renaissance" 팸플릿
- LYON THE TRAVEL GUIDE 단행본
- LYON MAP 단행본
- "Catherine Chambon Lyon 8e arrondissement" 단행본
- "Le patrimoine Tony Garnier a Lyon & Le patrimoine industriel du 8eme arrondissement" 브로셔
- MUSEE URBAIN TONY GARNIER 팸플릿
- LYON PLAN 팸플릿
- Lyon que j'aime 팸플릿
- "GRAND PROJECTS le bonheur est dans la ville!" 팸플릿
- "les berges du rhone a lyon PORTRAITS D'UNE VILLE" 단행본
- ONLY YOU 팸플릿
- NOT LYON 팸플릿
- LYONS- WORLD HERITAGE 팸플릿
- Carre de Soie 브로셔
-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the Lyon Town Planning Agency 브로셔
- Schema d'accueil economique 브로셔
- "Rapport de Mission Grand Lyon- Wilaya de setif" 팸플릿
- INVESTOR_ONLY YOU 팸플릿
- "Lyon Confluence Images et plans 45 repere pictures and maps 45 features" 브로셔
- Lyon Architecture plan XXe siecle 브로셔
- THE CITY OF LYONS TRAM SYSTEM 브로셔
- Gate ways 브로셔

- LE OPERE di rinnovamento DELLA CITTA 팜플릿
- PRE RITROVATA 브로셔
- Progetti Preliminari 브로셔
- Comune di Genova 브로셔
- Studio preliminare per la redazione del piano del verde 브로셔
- Una ragnatela verde per Genova 브로셔
- PROGETTO FIUMARA GENOVA 브로셔
- Viabilita forestale nella zona ambientale 브로셔
- Nel febbraio 2007 il Comune di Genova ha indetto un concorso 브로셔

(5) 파리, 프랑스

- "ACTIVITeS Jeune PUBLIC & FAMILLe" 브로셔
- Les COURS PUBLICS 2011-2012 팜플릿
- Maps & InFORMaTIONS 브로셔
- EsPRIT(s) Des LieuX 브로셔